Samil Insight

Global M&A Industry Trends: 2024 Outlook - Silver Lining

February 2024

삼일PwC경영연구원

pwc 삼일회계법인

박 대 준 대표
삼일PwC Deal 부문

들어가며

지난 2022년부터 시작된 금리 인상과 투자심리 위축, 지정학적 갈등 속에서 지난 해 인수합병(M&A) 시장은 가장 침체됐던 한 해로 기록될 것 같습니다.

PwC는 매년 초 글로벌 M&A 시장 트렌드를 산업별로 분석해 발표하고 있습니다.

올해 역시 다양한 시장 지표와 서베이, PwC의 분석을 토대로 2024년 M&A 전망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작년에 이어 한국 시장의 트렌드와 전망을 별도 분석해 보고서에 담았습니다.

올해 경제 전망은 그리 밝지 않지만, 지난 2년 간 약세장이 마무리되면서 잔뜩 움츠렸던 M&A 활동이 회복을 시작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구름 뒤편의 밝은 햇살'이란 뜻의 silver lining이란 말처럼 어둠을 딛고 희망이 찾아오는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본 보고서가 올해 M&A를 준비하거나 계획 중인 PwC의 고객과 독자에게 풍부한 인사이트를 제공하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Agenda

Executive Summary	4
2023년 M&A 시장 Review	11
2024년 M&A 시장 전망	20
2024년 M&A 전략	25
산업별 M&A Trend 및 2024년 Outlook	34

Global M&A Industry Trends: 2024 Outlook

Executive Summary

2024년 경제 및 산업 키워드: S.O.S → A.N.S.W.E.R

Mega Trend

SOS

지속가능성 (Sustainability)

ESG: Net Zero, 순환경제

인구 오너스 시대 (Demographic Onus)

생산가능인구 ↓ vs. 부양인구 ↑

공급 제약의 시대 (Supply Constraints)

탈세계화, 자국우선주의

+

Digital

생성형 AI, 로봇, 메타버스 등 첨단 기술

→

M&A Hot-Spot: ANSWER

AI

생성형 AI: 온디바이스 AI

Net-Zero

탄소중립, 에너지 전환

Smart Home/Factory

IoT, 생산 자동화

Web 3.0

탈중앙화(개인화): NFT(대체불가토큰), 메타버스

Electrification

모빌리티 변혁: 전동화(전기차), 전장화(자율주행)

Robotics

생산성 향상: AI와 결합된 로봇

2023년 M&A 시장 Revie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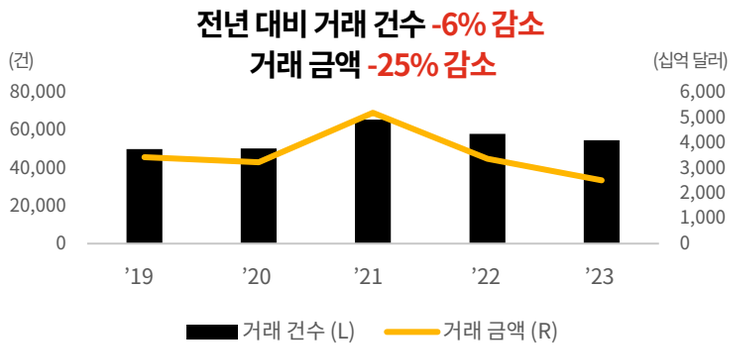
- (글로벌) ’21년을 고점으로 2년 연속 침체 지속. 다만, ’23년 하반기에는 상반기 대비 거래 금액이 +1.5% 증가하며, 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 점증
- (국내) ’23년 거래 건수 및 거래 금액은 전년 대비 각각 -12%, -17% 감소하며, 글로벌 시장(각각 -6%, -25%)과 유사한 조정

글로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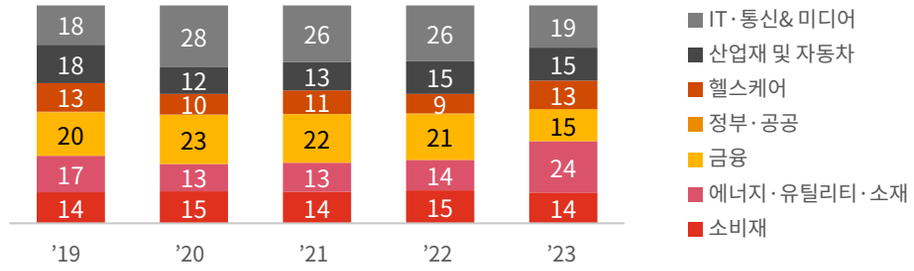
시장 규모 (’23년 기준)

거래 금액 **2.5조 달러(한화 3,269조* 원)**
거래 건수 **54,656건**

M&A 추이



섹터비중 (총 거래 금액 대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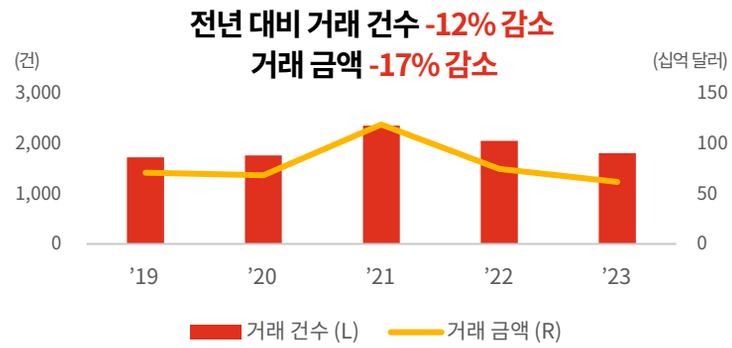


국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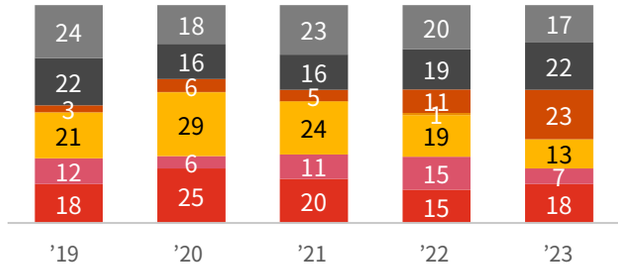
시장 규모 (’23년 기준)

거래 금액 **681억 달러(한화 81조 원)**
거래 건수 **1,809건**

M&A 추이



섹터비중 (총 거래 금액 대비, %)



*원/달러 환율: 1307.8원 적용(연평균 기준)
Sources: Refinitiv, Dealogic and PwC analysis

2024년 M&A 시장 전망

시장 전체

지난 2년간의 약세장이 마무리되고, ’24년부터는 M&A 시장 회복 전망

- 인플레이션 · 고금리 · 지정학적 갈등 지속되나, 해당 요소들에 대한 경제주체들의 적응력이 높아짐에 따라 위험에 대한 인식 ↓ & 투자 심리 회복
- 2년간 지속된 시장 침체로 인해 매각 자산 누적: ’19년 이후 사모펀드 운용자산(AUM) 2배 급증. 사모펀드 평균 투자기간(4~5년)을 고려 시, Exit 매물 증가 시점 도래. IPO 시장 부진으로 인해 M&A를 통한 출구 전략이 더욱 각광
- 기업 측면에서는 글로벌 메가트렌드(디지털화, 기후변화, 인구통계학적 변화 등) 반영한 본질적인 비즈니스 모델 전환 필요

주요 투자 주체

기업		• 포트폴리오 최적화(비핵심 자산 매각) 및 미래산업(AI, 로봇, 모빌리티 등) 투자. 기후 대응 및 공급망 안정화도 관심
사모자본	Buyout	• 자본시장 침체에도 불구, ’23년 사상 최대 자금 모집 → 풍부한 자금 기반으로 신규 매수와 기존 투자건 Exit 동시 증가
	VC	• 고금리 장기화로 VC 자금 여력 급감. 당분간 스타트업의 어려움 지속되며, 매물 증가 → 자금 여력이 있다면 투자 적기
	부동산	• 고금리 지속에도 불구, 금리 상승이 정점에 도달했다는 인식 확산되며 부동산 투자 심리 회복
	Infrastructure	•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에너지 인프라, 데이터센터 및 미래 모빌리티 인프라에 대한 투자 지속
	사모채권	• 장기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자금. ’23년 기준 4,500억 달러의 Dry Powder 보유하며, M&A 시장 회복의 조력자가 될 것

2024년 M&A 전략

M&A 전략: Two Track

기존 사업 수익성 강화

- **All or Nothing:** 非 핵심사업 매각 or 기업인수 통한 규모의 경제
- **자동화:** 인건비 절감 및 고령화 대응
- **공급망 다변화:** 안정적 원료 조달을 위한 기업인수 및 제휴

미래산업으로의 전환

- **ESG**
  - 에너지 전환: 신재생 및 원자력, 수소, 전기화
  - 리사이클링: 폐배터리, 폐가전,건설 폐기물 등 주목
- **첨단기술 확보**
  - AI: AI 인프라(데이터센터, AI 반도체) 및 모델, 어플리케이션
  - 로봇: 협동로봇/물류로봇 → 서비스로봇으로 발전
  - 미래형 모빌리티: 커넥티드, 전기차, 자율주행
  - 디지털 헬스케어: 원격의료, AI 활용한 진단 및 신약 개발
  - 스마트 홈: 에너지 효율화, 보안 강화 등

2024년 M&A 전략: 업종별 상세 - 글로벌

CM	**① 고금리 지속에 따른 포트폴리오 조정(디레버리징 중심) ② 신제품·신시장 진출, 핵심 역량 확보 위한 볼트온 거래 증가 전망** • 포트폴리오 최적화: 비핵심자산 매각, 부동산 유동화 등 통한 부채비율 조정→ 신기술, ESG, 공급망, 시장 확대에 대한 투자 지속 • 부실기업 M&A: 특히 소매유통과 숙박업을 중심으로 부실기업 증가 예상
에너지· 유틸리티&소재	**탄소중립을 위한 포트폴리오 전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핵심 광물 확보 → 전년에 이어 '24년에도 M&A 활황 전망** • 탄소중립: 에너지 전환(화석연료 → 친환경 에너지), 전기화 투자 • 정부 정책 활용: 각국 정부의 세제 혜택 및 자금 지원(ex. 미국 IRA, 유럽 그린딜) → 배터리, 에너지 저장, 수소연료, 탄소포집(CCUS) 수혜
금융	**건전성 관리가 화두. M&A는 '23년 대비 회복되나, 다른 섹터 대비 미미할 것. 주요 관심사는 ① 건전성 관리, ② 디지털, ③ ESG** • 건전성 관리: 부실자산(NPL) 매각 증가, 기존 대출/투자 자산(특히 상업용 부동산) 관리 강화 • 디지털 전환: AI 활용한 고객 서비스 개선(챗봇, 자산관리 솔루션 등), 온라인 채널 강화
헬스케어	**'23년을 저점으로 M&A 시장 회복 전망. ① 비핵심 자산 매각, ② R&D 파이프 라인 보강, ③ 디지털 혁신에 주력** • R&D 파이프 라인 보강: 대형 제약사 주력 약품들의 특허 만료 임박 → 파이프라인 공백을 메우기 위한 중견 바이오테크사 인수 증가 • 디지털 혁신: 신약 개발을 위한 AI 기술 투자, 디지털 헬스케어(원격의료, 헬스 디바이스 등), 로봇 접목한 의료 서비스 첨단화
산업재 및 자동차	**비핵심 자산 매각 통한 포트폴리오 최적화, 신기술 투자, ESG 대응, 공급망 안정화에 주력** • 신기술 및 ESG: AI, 로봇, 전기차 배터리, 산업장비 전기화 관련 기술 • 공급망 안정화: 수직계열화를 위한 인수합병, 주요 업체 전략적 제휴 증가. 정부 지원 下 리쇼어링 및 니어쇼어링
IT· 통신&미디어	**생성형 AI 및 신기술의 발전, 사모펀드의 풍부한 자금 여력 등으로 '24년 M&A 시장 회복 전망하나, 수익성 위주의 투자 기조 지속** • 수익성 중심 투자: 지속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갖춘 기업(예. SaaS 기업)들의 투자 매력도 상승 • 규제 대응: 미국/EU 등의 빅테크 규제로 리스크 상존 → 규제 강화 및 변동성 고려한 M&A 전략 수립 필요

2024년 M&A 전략: 업종별 상세 - 국내

CM

소비 침체 지속에 따라 수익성에 초점. ESG와 자동화도 주요 관심사

- 기존 사업 수익성 강화를 위해 비핵심 자산 매각, 사업부간 통폐합, 제품 카테고리 축소 등 진행
- 인구구조 변화 반영하여 자동화 투자(AI, 로봇 등), ESG 대응을 위해 스마트팜·친환경 포장재에 대한 관심 지속

에너지·유틸리티&소재

가장 큰 관심사는 ESG와 자원 확보

- ESG: 에너지 전환(친환경 에너지 확대, 전기화), 탄소감축(탄소포집기술, 전력 효율화), 순환경제 구축(리사이클링, 친환경 플라스틱)
- 자원 확보: 핵심 소재 확보를 위한 전략적 제휴 증가

금융

고금리 환경 속 건전성 악화 우려. 수익성 관리에 중점을 두는 가운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M&A의 주요 동인으로 작용

- 포트폴리오 관리: 부실자산(NPL) 매각 및 비핵심 자산 Book-off
- 디지털 전환: AI 활용 능력 강화(챗봇 등), 온라인 채널 강화 속 점포/인력 축소 지속

헬스케어

바이오테크 기업의 낮아진 Valuation 下 신성장동력을 찾기 위한 대형 제약사의 M&A 니즈 증가

- R&D 파이프라인 확보 및 컨슈머헬스, 디지털 부문 투자. 특히 신약 개발/진단 분야 AI 기술에 관심
- 자금 조달에 난항을 겪는 바이오테크사 위주로 매물 증가 전망

산업재 및 자동차

미래산업으로의 전환을 위한 포트폴리오 최적화 진행. 주요 관심사는 공급망 안정화, 신기술, 자동화, 탈탄소화

- 공급망 안정화: 자동차 부문의 주요 화두. 전반적 부품 공급 안정화 추진하는 가운데, 배터리 부문에 관심
- 신기술 확보: AI, 로봇, 커넥티드, 전기화에 투자 집중. SW에 대한 관심 증가
- 탈탄소화: 추진동력 변화, 에너지 효율화 기술

IT·통신&미디어

경기 불확실성에도 불구 공급망 안정화와 미래기술에 대한 투자 지속

-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M&A 및 전략적 제휴, 니어쇼어링/리쇼어링 진행
- AI, 클라우드, 빅데이터, 메타버스 관련 기술 및 인프라에 대한 투자

Global M&A Industry Trends: 2024 Outloo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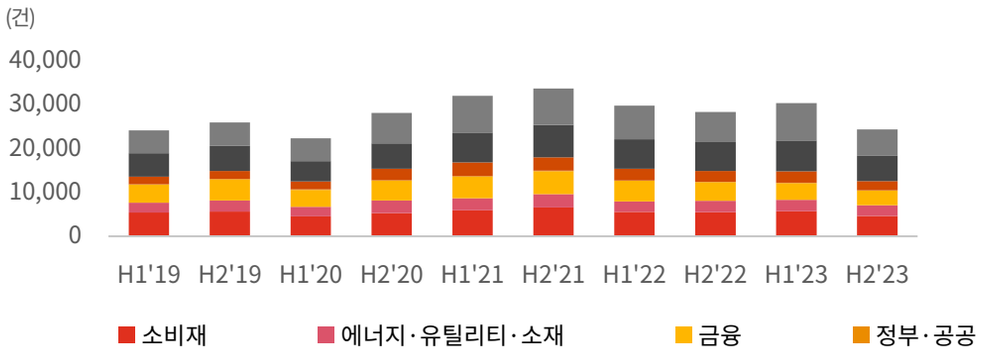
2023년 M&A 시장 Review

2023년 M&A 시장 점검: 시장 전체, 업종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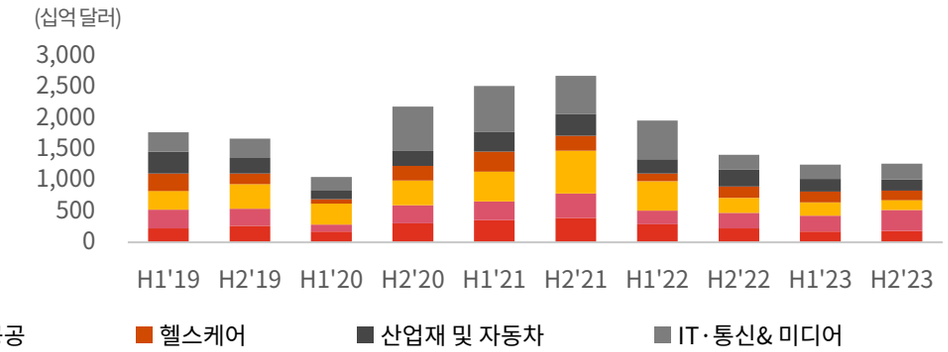
- ’23년 글로벌 M&A 시장은 거래 건수 54,656건(YoY -6%), 금액 2.5조 달러(YoY -25%) 기록 → **‘21년 이후 지속 감소하는 추세**
  - 팬데믹 이전인 ’19년과 비교시, 거래 건수는 +9% 증가한 반면 금액은 -27% 감소
- ’23년 초 시장 반등에 대한 기대가 있었으나, 고금리에 따른 자금조달 난항으로 부진 지속. 다만 ’23년 하반기에는 상반기 대비 거래 금액이 +1.5% 증가 **→ ’24년에는 M&A 시장이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감 형성**
- 자금시장 악화 및 투자심리 위축으로 중소규모의 mid-market 딜이 주요 전략으로 자리잡으며, ’21년 150건에 달했던 메가딜(거래 금액 50억 달러 이상)이 ’23년에는 60건으로 급감 → 이는 2년 사이에 -60% 감소한 수준
- **에너지·유틸리티·소재(YoY +26%)와 헬스케어(YoY +9%) 제외 나머지 업종들은 모두 전년 대비 거래 금액 감소**
  - ESG가 기업들의 주요 과제로 인식되며, 에너지·유틸리티·소재 부문이 전체 M&A 시장 내 가장 큰 비중(거래 금액 기준 24%)을 차지. 관련 메가딜 규모는 전년 대비 3배 증가하였으며, ‘23년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한 딜은 모두 에너지 부문
  - IT·통신 & 미디어 산업은 ’20년 이후 3년 연속 M&A 시장 내 1위를 유지했으나, ’23년에는 전체 시장 내 19%(거래 금액 기준)를 차지하며 2위 기록 → 고금리 및 경기하강과 함께 각국 정부의 IT부문 규제가 영향을 미치며 전년 대비 거래금액 -44% 급감

글로벌 M&A 거래 건수 및 금액(Industry별)

거래 건수



거래 금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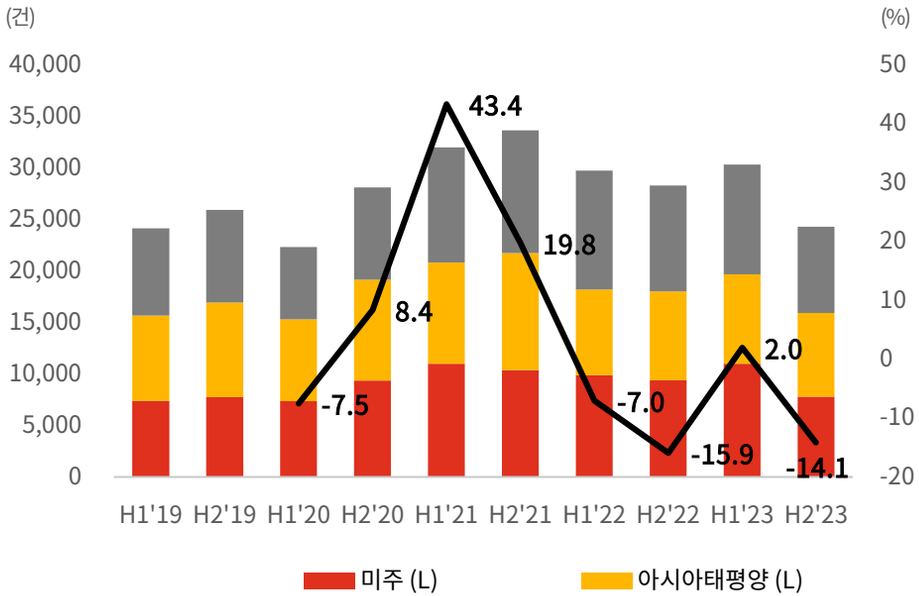
Sources: Refinitiv, Dealogic and PwC analysis

2023년 M&A 시장 점검: 시장 전체, 지역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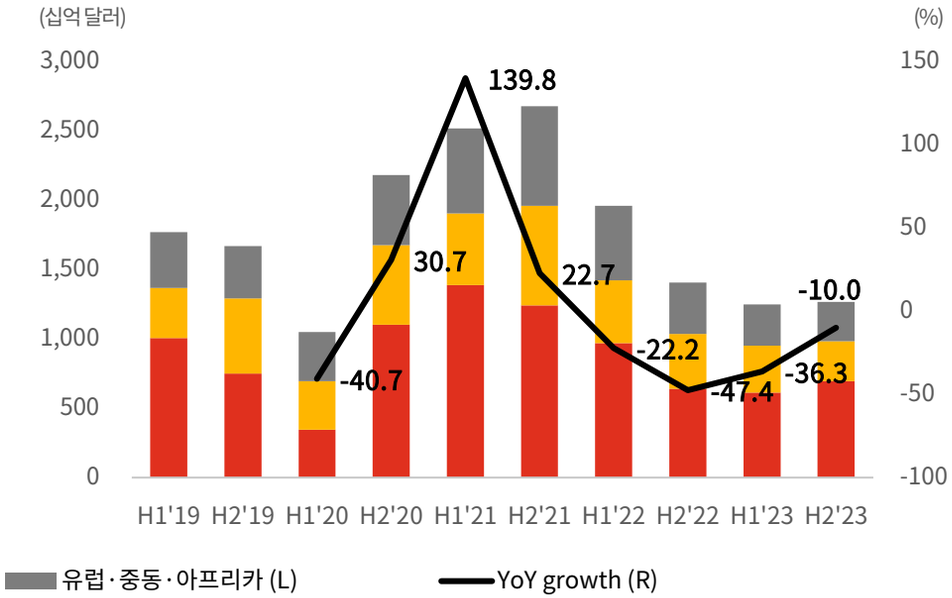
- **'23년은 전 지역에서 부진한 실적을 기록. 전년 거래 금액 대비 유럽·중동·아프리카(-36%), 아시아태평양(-26%), 미주(-19%) 순으로 부진**
  - 팬데믹 이전인 '19년 거래 금액과 비교시에도 전 지역이 부진하며, 아시아태평양(-31%), 유럽·중동·아프리카(-26%), 미주(-25%) 순
    - + **(미주)** 타 지역 대비 상대적으로 메가딜이 활발히 전개. 특히 '23년 하반기 거래 금액이 상반기 대비 +13% 증가하며, 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감 형성
    - + **(유럽·중동·아프리카)** 거시경제 및 지정학적 리스크 부각되며, 지역 내 거의 모든 국가들의 M&A가 부진
    - + **(아시아태평양)** 중국 시장은 리오프닝 및 부동산 침체 등에서 온전히 회복하지 못했고, 일본은 다소 안정적인 투자 환경에도 불구 거래 규모 감소. 인도마저 전년 대비 부진한 실적을 보이며 전반적으로 M&A 시장이 둔화

글로벌 M&A 거래 건수 및 금액(지역별)

거래 건수



거래 금액



Sources: Refinitiv, Dealogic and PwC analysis

2023년 M&A 시장 점검: 글로벌 Top 10 Deal – 미국, EU&R 섹터 강세

- ’23년 상위 10개 딜의 대부분은 미국에서 실행. Top 10 거래 중 인수기업 8개사, 피인수기업 5개사가 미국 기업
- **산업의 경우 ‘에너지·유틸리티·소재’ 섹터가 강세를 보임. ’23년 M&A 거래 금액 기준 1위, 2위, 7위, 8위 딜이 모두 해당 섹터에서 실행**

Top 10 Global Deals, 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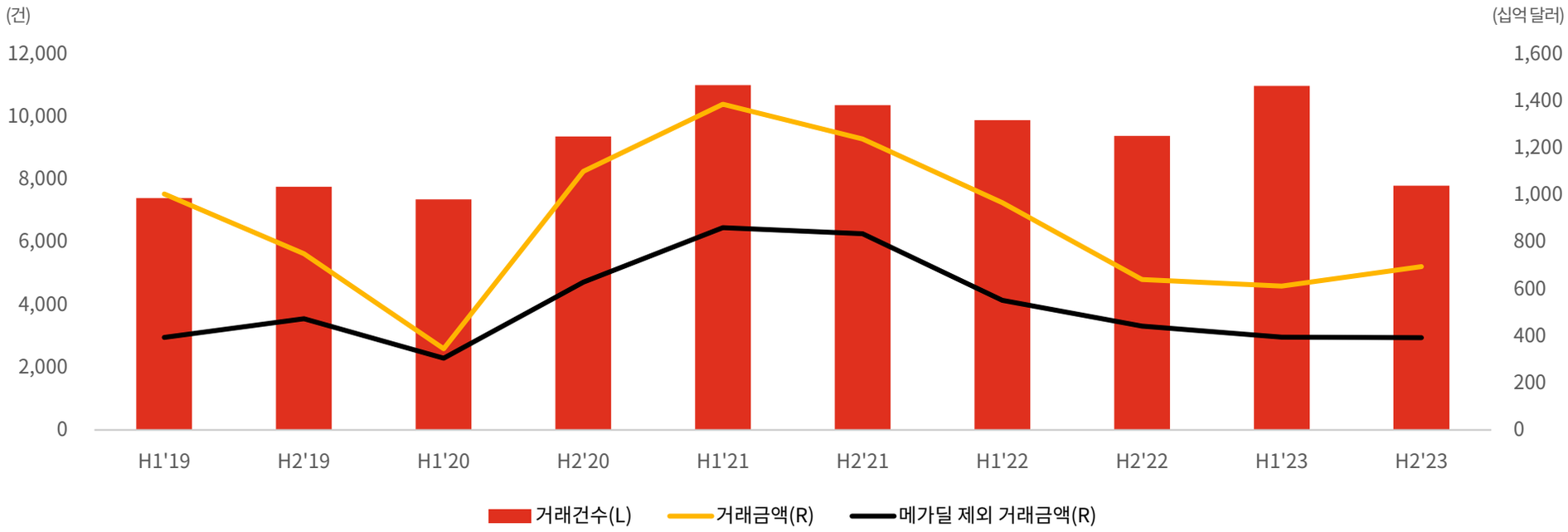
	Target	Buyer	Sector	Deal size(US$bn)
1	Pioneer Natural Resources Co	Exxon Mobil Corp	Energy, Utilities and Resources	60.3
2	Hess Corp	Chevron Corp	Energy, Utilities and Resources	52.9
3	Seagen Inc	Pfizer Inc	Health Industries	43.8
4	Splunk Inc	Cisco Systems Inc	Technology, Media and Telecommunications	28.1
5	Telecom Italia SpA-Fixed Network Business	Investor Group	Technology, Media and Telecommunications	23.6
6	VinFast Auto Ltd	Black Spade Acquisition Co	Industrial Manufacturing and Automotive	23.0
7	Magellan Midstream Partners LP	ONEOK Inc	Energy, Utilities and Resources	18.6
8	Newcrest Mining Ltd	Newmont Corp	Energy, Utilities and Resources	18.3
9	Viterra Ltd	Bunge Ltd	Consumer Markets	18.0
10	Toshiba Corp	TBJH Inc	Consumer Markets	15.2

Sources: Refinitiv, Dealogic and PwC analysis. Based on publicly announced deals.

2023년 M&A 시장 점검: 지역별 - 미주

- **'23년 미주 지역의 M&A 거래 건수와 금액은 전년 대비 각각 -3%, -19% 감소. 거래 건수 및 금액 모두 글로벌 전체 평균(각각 YoY -6%, -25%) 대비 양호한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회복력이 높았던 지역
  - 팬데믹 이전인 '19년과 비교시 거래 건수는 +24% 증가한 반면, 거래 금액은 -25% 감소. 이는 '23년에 중소규모 mid-market 딜이 증가했기 때문
- 다만, 미주 지역의 '23년 하반기 M&A 거래 건수는 상반기 대비 -29% 감소한 반면 금액은 +13% 증가했는데, 이는 타 지역 대비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었던 메가딜(엑손모빌-파이오니어 인수 603억 달러, 셰브론-헤스 인수 529억 달러 등)에 따른 것으로 판단('23년 하반기 메가딜 금액은 상반기 대비 +38% 증가)
  - 타 지역에서는 동기간 메가딜 감소하며, 미주 지역의 메가딜이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2년 62% → '23년 71%로 증가

미주 지역 M&A 거래 건수 및 금액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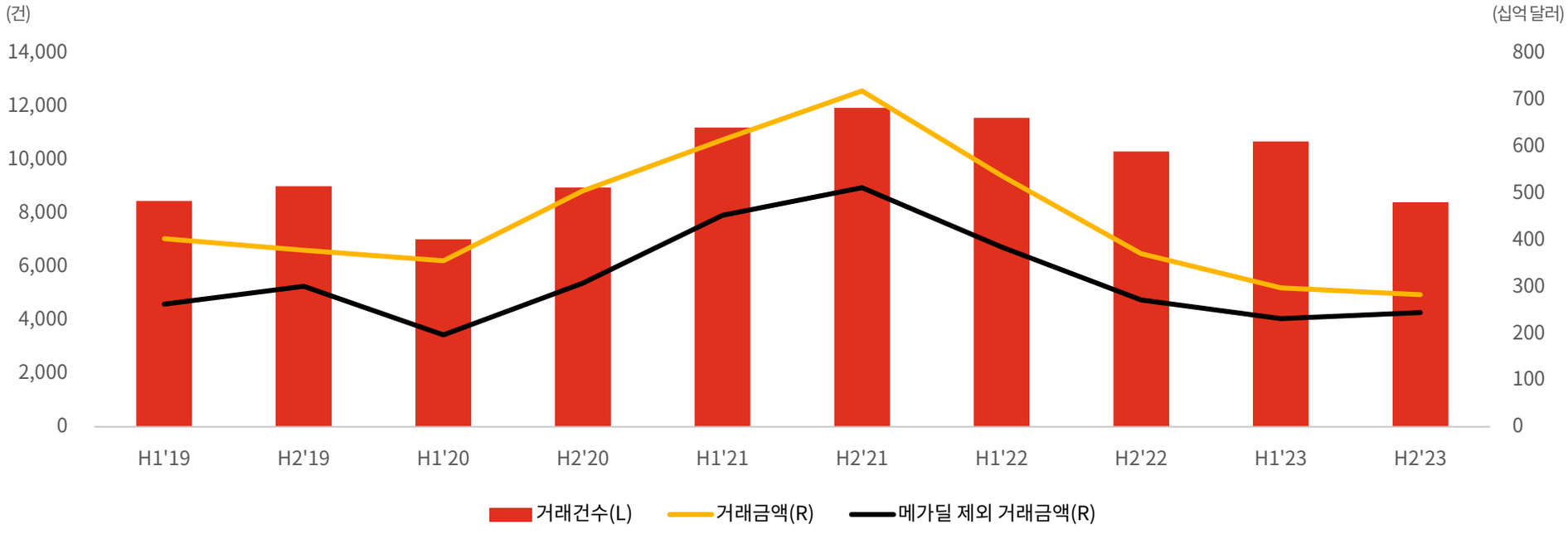


Sources: Refinitiv, Dealogic and PwC analysis

2023년 M&A 시장 점검: 지역별 - 유럽·중동·아프리카

- **'23년 유럽·중동·아프리카 지역의 M&A 거래 건수와 금액은 전년 대비 각각 -13%, -36% 감소하며, 글로벌 전체 평균(각각 YoY -6%, -25%) 대비 부진**
  - 팬데믹 이전인 '19년과 비교시에는 거래 건수는 +9% 증가한 반면, 금액은 -26% 감소했는데, 이는 메가딜 감소로 인함
- 해당 지역의 M&A는 고금리 등의 거시경제 요인과 더불어 지정학적 갈등, 투자자 자신감 하락으로 큰 타격을 입음
  - 오스트리아, 독일, 이탈리아, 스위스를 제외한 거의 모든 국가들의 M&A 거래 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하며, 2년 연속 부진 지속
- '23년 하반기 M&A 거래 건수(YoY -18%)는 상반기(YoY -8%) 대비 부진했으나, 하반기 거래 금액(YoY -24%)은 상반기(YoY -45%) 대비 낙폭 감소

유럽·중동·아프리카 지역 M&A 거래 건수 및 금액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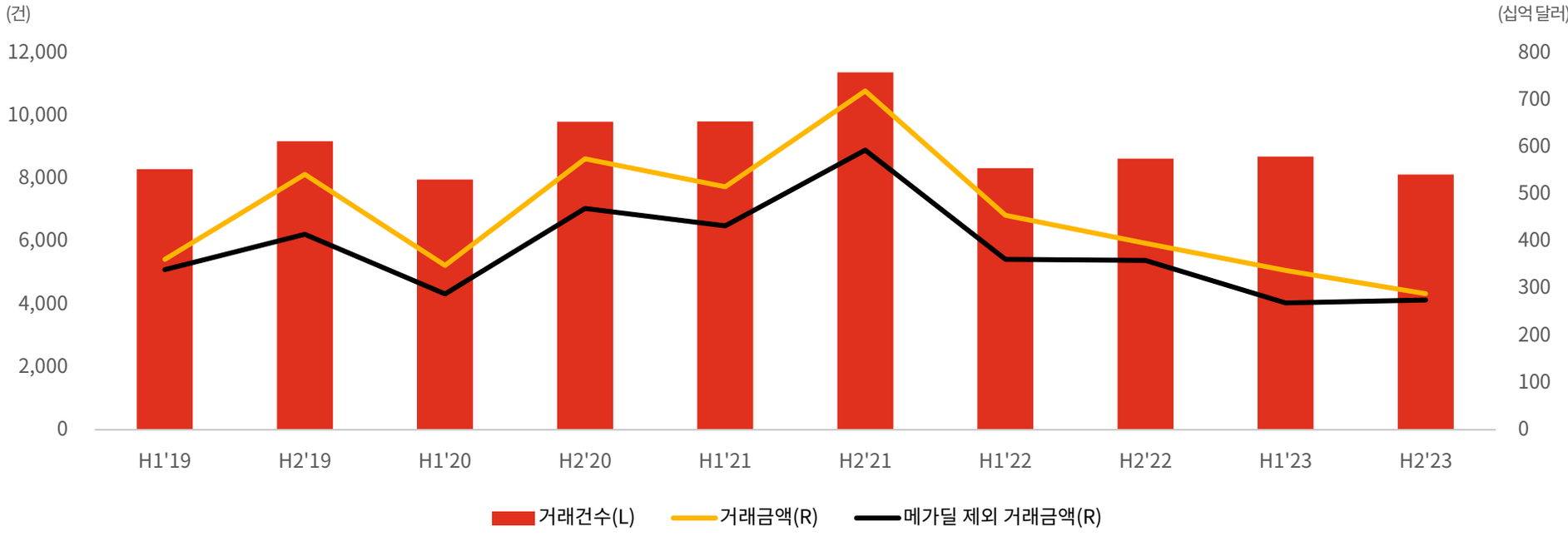


Sources: Refinitiv, Dealogic and PwC analysis

2023년 M&A 시장 점검: 지역별 - 아시아태평양

- **'23년 아태지역의 M&A 건수와 금액은 전년 대비 각각 -1%, -26% 감소. 글로벌 전체 평균(각각 YoY -6%, -25%) 대비 건수는 선방, 금액은 유사**
  - 팬데믹 이전인 '19년과 비교시 거래 건수와 금액 각각 -4%, -31% 감소한 기록을 보이며, 타 지역 대비 상대적으로 더딘 회복세를 기록
    - + 중국의 M&A 거래가 여전히 부진한 상태이며, 당분간은 outbound 보다는 내부 시장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 리오프닝·부동산 침체 등 자국 이슈 선제적 해결이 우선인 상황
    - + 일본은 저금리·저물가로 안정적인 투자 환경이 형성됐음에도 불구, M&A 거래 건수는 전년 대비 -4% 감소
    - + 인도는 '22년 메가딜(HDFC뱅크-주택금융공사합병 604억 달러)에 따른 기저효과로 '23년에는 거래 건수와 금액 각각 -4%, -70% 감소

아시아태평양 지역 M&A 거래 건수 및 금액 추이



Sources: Refinitiv, Dealogic and PwC analysis

2023년 M&A 시장 점검: 지역별 - 한국

- **'23년 국내 시장은 거래 건수 1,809건(YoY -12%), 거래 금액 81조 원(YoY -17%)으로 글로벌(각각 -6%, -25%)과 비교시 건수는 부진, 금액은 선방**
  - 팬데믹 이전인 '19년과 비교시 거래 건수는 +5% 증가한 반면, 금액은 -1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메가딜에 소극적이었던 것으로 판단
- 업종별로는 전년 거래금액 대비 에너지·유틸리티·소재 -61%, 금융 -42%, IT·통신&미디어 -29%, 산업재·자동차 -2%, 헬스케어 +79% 순으로 변동
  - 산업재·자동차는 SK그룹(SK온·SK쉴더스 투자자금 유치 및 SK하이닉스-이천 수처리센터 매각 합계 4.5조 원)의 M&A 영향으로 전년 대비 선방
  - 헬스케어는 큰 폭으로 거래금액이 증가했는데, 이는 메가딜(셀트리온 그룹 합병: 약 10.3조 원)에 기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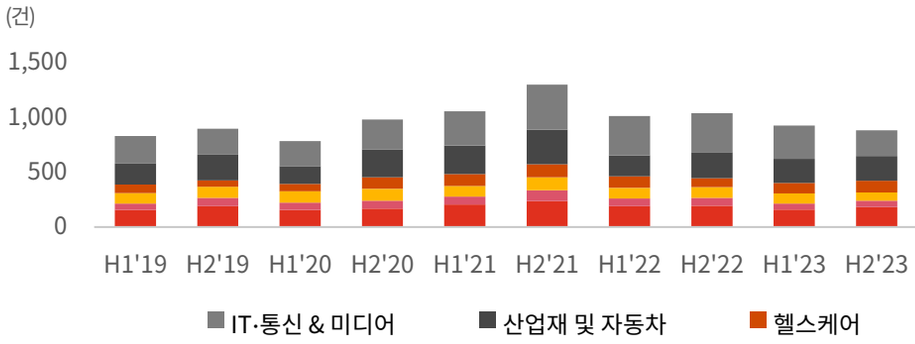
글로벌 vs. 국내 M&A 시장 특징('23년 거래 금액 기준)

- **글로벌은 에너지·유틸리티·소재(23%)와 IT·통신&미디어(19%)의 비중이 높은 반면, 국내는 헬스케어(23%)와 산업재 및 자동차(22%) 순으로 높은 비중 차지**
- 국내에서 헬스케어 비중이 높은 것은, '셀트리온-셀트리온 헬스케어'합병에 따른 일시적 현상이며, 해당 거래 제외시 전년과 유사한 수준
- **한국 경제 내 높은 제조업 비중*으로 인해 M&A 시장에서도 산업재 및 자동차의 위상이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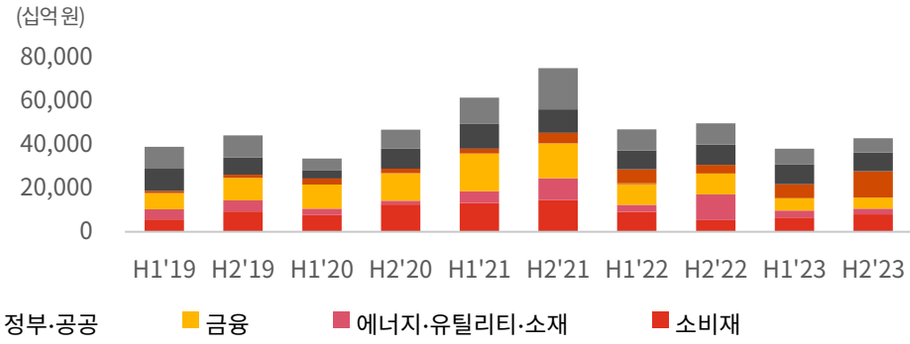
* GDP 중 제조업 비중: 국내 25% vs. OECD 평균 13%('21년 기준)

국내 M&A 거래 건수 및 금액: Industry별

거래 건수



거래 금액



Sources: Refinitiv, Dealogic and PwC analysis

2023년 M&A 시장 점검: 한국 Top 10 Deal – 헬스케어 강세

- '23년 매크로 불확실성 및 고금리로 인해 국내 대기업들의 M&A 활동이 크게 감소했으며, PE들이 시장을 주도
- **Top 10 딜에서 강세를 보인 업종은 제약&생명과학**으로, 1위 셀트리온 헬스케어, 2위 오스템 임플란트, 10위 이오플로우 딜이 해당
- **10건 중 3건은 SK그룹 딜.** 해당 딜은 공통적으로 재무건전성 개선, 미래 투자금 확보, 글로벌 입지 강화라는 목표를 바탕으로 투자금을 유치한 것으로 보임

Top 10 Deals in South Korea, 2023

	Target	Buyer	Sector	Deal size(US$mn)
1	Celltrion Healthcare Co Ltd	Celltrion Inc	Pharma & Life Sciences	7,828
2	Osstem Implant Co Ltd	Dentistry Investment Co Ltd	Pharma & Life Sciences	1,512
3	SK Shieldus Co Ltd	EQT Infrastructure VI Fund	Business Services	1,468
4	SK On Co Ltd	Investor Group	Manufacturing	1,255
5	SM Entertainment Co Ltd	Investor Group	Hospitality & Leisure	964
6	Kakao Entertainment Corp	Investor Group	Technology	929
7	SK Hynix Inc-Icheon Water Treatment Center	Clean Industrial REIT Co Ltd	Business Services	882
8	AirFirst Co LTD	Blackrock Global Infrastructure Fund IV	Chemicals	803
9	PI Advanced Materials Co Ltd	Arkema Korea Holding	Chemicals	749
10	Eoflow Co Ltd	Medtronic Korea Holdings Co Ltd	Pharma & Life Sciences	691

Sources: Refinitiv, Dealogic and PwC analysis. Based on publicly announced deals.

Global M&A Industry Trends: 2024 Outlook

2024년 M&A 시장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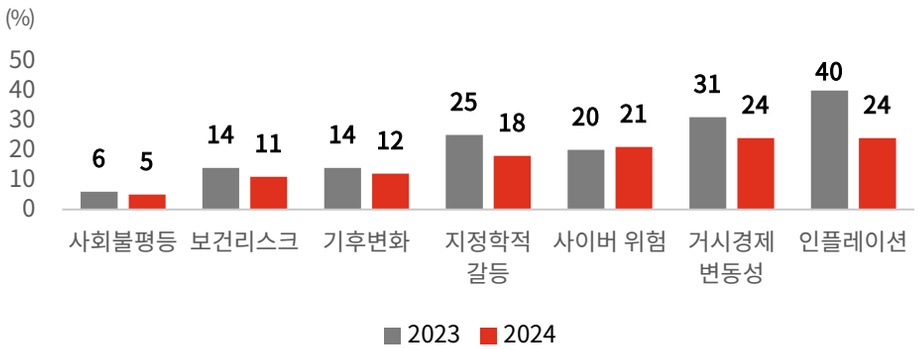
2024년 M&A 시장 전망

- **M&A 약세장이 마무리되고, '24년부터 새로운 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
  - ① 인플레이션과 고금리 · 지정학적 갈등 지속에도 불구, 경제주체들의 적응력이 높아짐에 따라 **위험에 대한 인식이 감소하고 투자 심리 회복**
  - ② **2년 간 지속된 시장 침체로 인해, Buyer의 수요 & Seller의 매각 자산이 누적되면서 딜메이킹 변곡점에 도달**
    - (수요) 사모자본은 4조 달러에 달하는 Dry Powder(미집행 출자약정금)를 보유
    - (공급) 사모 운용자산(AUM)은 12조 달러로 '19년 대비 2배 급증. 사모펀드 평균 투자기간(4~5년)을 고려 시, Exit 매물 증가할 것
    - 부진한 IPO 시장도 M&A 활동이 증가할 것이라는 것을 뒷받침. IPO 침체기에는 기업들이 여러가지 출구 전략을 모색하면서 M&A 기회가 더 많이 창출되는 경향
  - ③ **기업 측면에서는 혁신에 대한 필요성 증가.** 디지털화, 기후대응, 인구통계학적 변화 등 메가트렌드 반영하여 본질적 비즈니스 모델 전환 필요

자세한 내용은 삼일PwC의 'PwC's 27th Annual Global CEO Survey'와 'K-PE(Korea Private Equity)의 현주소'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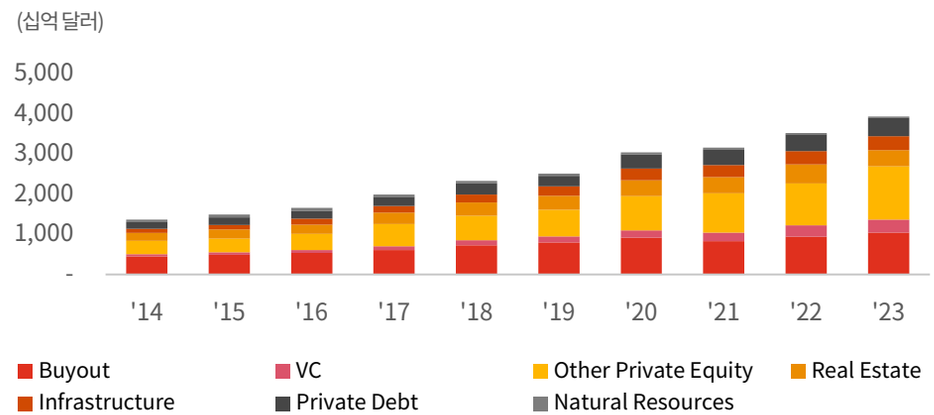
위험에 대한 인식 감소(PwC's 27th Annual Global CEO Survey)

Q. 귀사는 향후 1년 간 다음과 같은 위협에 얼마나 노출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Base: All respondents(2023=4410, 2024=4702)
Source: PwC's 27th Annual Global CEO Survey

사모자본 Dry Powder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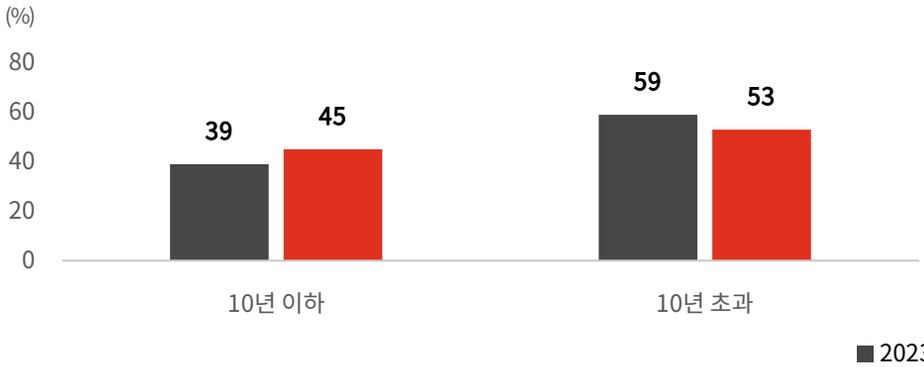
Other Private Equity: Growth, Balanced, Fund of Funds, Secondaries and others
Sources: Preqin, PwC analysis

주요 투자 주체별 전망: 기업

- 글로벌 CEO의 45%는 자신이 속한 기업이 그대로 운영된다면 10년 이상 생존하기 힘들다고 답했으며, 이는 작년(39%)대비 증가한 수치. 이와 같은 **생존에 민감한 '불안한 경영진'들은 기업 혁신을 위해 M&A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
- **기업들의 M&A는 ① 부채비율 개선을 위한 자산 매각과 ② 미래 산업 대응을 위한 포트폴리오 조정으로 구분**될 것
  - 고금리 장기화로 부채비율이 높은 기업들의 어려움 지속되며, 대차대조표 개선을 위한 자산 매각 증가
  - 미래산업(기후대응,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한 기술 변화 등)으로의 투자 집중, 이를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비핵심 사업 매각 진행
- **기업들의 투자 관심사는 신기술(인공지능, 로봇, 모빌리티 등)과 ESG(기후대응), 소비자 선호도** 변화이며, 안정적 공급망 구축은 적응이 진행됨에 따라 전년 대비 관심이 소폭 감소
- M&A 물량이 증가하고 매각 가격에 대한 눈높이(Valuation)가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는 시점에서, 현금이 풍부하고 공격적 성장 목표를 가진 기업에게는 M&A 최적 시기 도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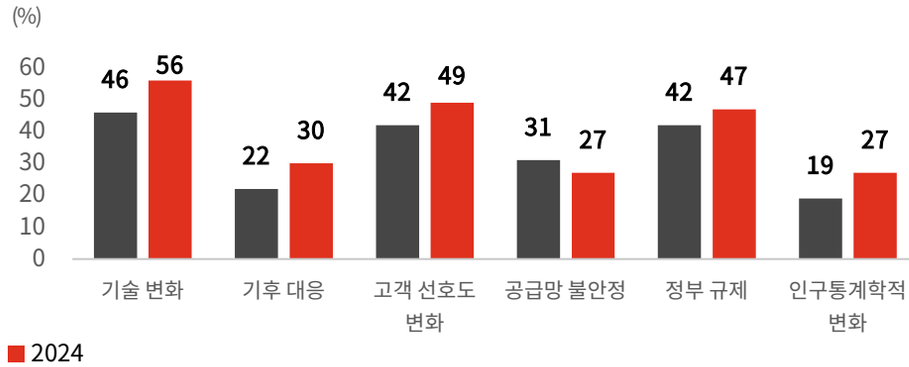
혁신의 필요성 증가(PwC's 27th Annual Global CEO Survey)

Q. 귀사가 현재의 추세로 계속 운영된다면, 사업의 수익이 어느정도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업의 주요 관심사(M&A 동력)

Q. 다음 각 항목들은 지난 5년 및 향후 3년 간, 귀사의 가치 창출방식에 어느정도 변화를 가져왔습니까(혹은 가져올 것으로 전망합니까)?



Base: All respondents(2023=4410, 2024=4702)
Source: PwC's 27th Annual Global CEO Survey

주요 투자 주체별 전망: 사모자본(Private Capital)

Buyout

- **풍부한 자금 여력을 바탕으로 신규 매수와 기존 투자 Exit이 동시에 증가할 것**
  - **자본시장 침체에도 불구하고, '23년 Buyout 펀드는 4,290억원의 사상 최대 자금 모집(Fundraising)**
  - '21~'23년 동안 Exit 40% 이상 감소. **평균 4~5년인 Buyout 펀드의 투자 기간 고려시 '24년부터 Exit 물량 증가 전망**. 다만 M&A 호황기에 지불한 높은 Multiple 고려시, 수익률 저하로 매각을 보류하고 다른 방안(Continuation vehicles*, 전환사채 및 우선주 발행 등)을 모색할 가능성도 높음

* 만기가 도래하는 펀드의 자산을 새로운 펀드로 이전하는 방식

벤처 캐피탈 (VC)

- '22년 이후 투자자들의 위험 회피 성향이 높아진 가운데, 위험 대비 보상 비율이 높은 VC가 가장 큰 영향을 받았음
  - '23년 VC 자금 모집은 460억 달러로, '15년 이후 최저치
- **고금리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VC의 자금여력이 높지 않은 상황으로 스타트업의 어려움 가중될 것.** 이에 따라 유동성 확보가 어려운 스타트업은 매각이 최선의 선택일 수 있음
- 다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기후기술 부문에 대한 VC의 투자는 지속되어 왔으며, 이러한 Trend는 지속될 전망

부동산 (Real Estate)

- 고금리 환경이 지속되고 있지만, **금리 상승이 정점에 도달했다는 인식이 확산되며 부동산 딜 비즈니스 환경은 우호적으로 변화 중. 투자심리가 개선되며 '24년부터 부동산 딜이 다시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
- 투자자들은 **인구구조 변화, 탈탄소화, 디지털화 등의 메가트렌드를 반영하여 부동산 포트폴리오를 재조정할 것**
  - 글로벌 고령화 추세로 의료 관련 부동산 수요 증가
  - 인공지능 확산에 따라 데이터 사용 · 저장의 필요성이 더욱 증가하며 데이터센터 투자 각광

Infra-structu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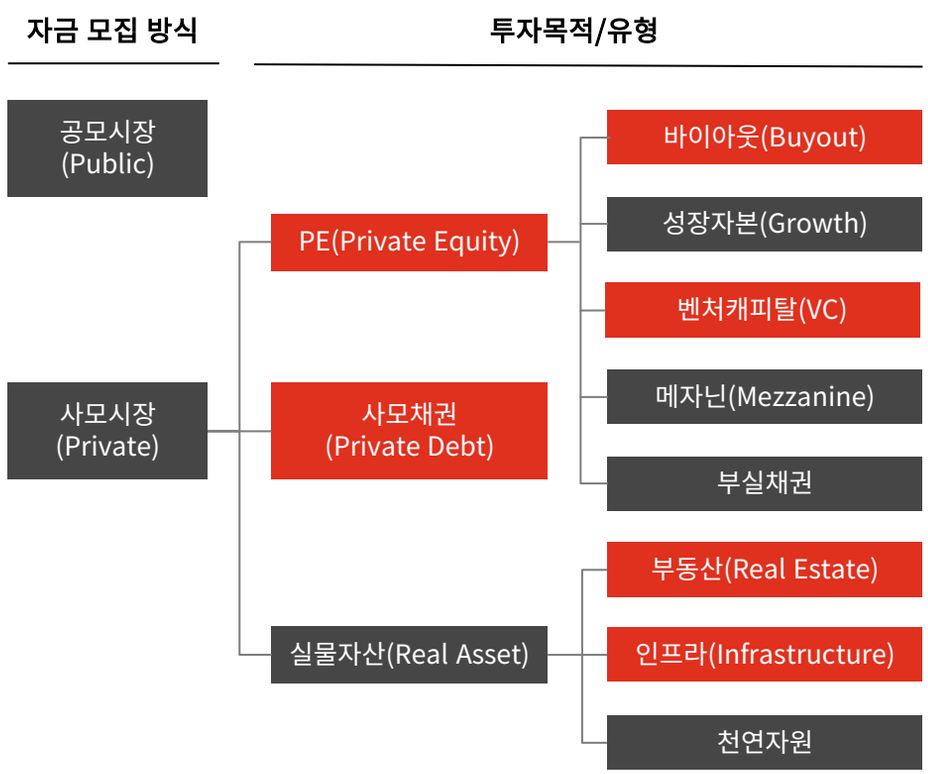
- 인프라는 수십년에 걸쳐 일정한 현금흐름을 제공하는 매력적인 투자 자산
-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에너지 전환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관심 증대. 또한 많은 국가에서 세제 혜택, 자금 지원 및 정책 변경, 정부 주도 프로젝트 진행 등을 통해 인프라 투자 활성화를 유도 중
  - 에너지 저장, 전기차 충전, 항공 및 해양산업용 대체 연료 등과 같은 에너지 전환 분야 투자
  - 데이터센터 및 미래 모빌리티 환경(UAM, 자율주행 등)에 대한 인프라 투자도 지속

주요 투자 주체별 전망: 사모자본(Private Capit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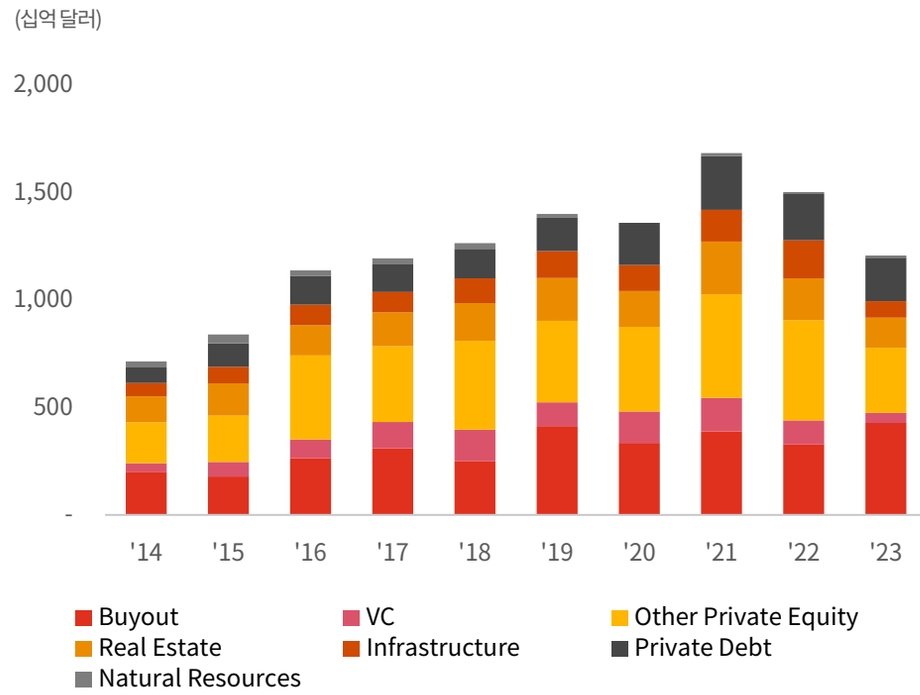
사모채권 (Private Debt)

- 사모채권은 지난 10년간 다른 자산 대비 높은 성장세 구가하며, 장기 투자자에게 적합한 자산군으로 확고한 입지를 다져왔음
  - 사모채권 10개년 CAGR: Dry Powder +15%, 운용자산(AUM) +14%
- '23년 말 기준 사모채권은 4,500억 달러의 Dry Powder를 보유하고 있으며, '24년에는 더욱 활발히 딜메이킹을 지원할 것

사모자본(Private Capital) 시장의 구조



사모시장 자금 모집(Fundraising) 현황: Buyout으로 자금 집중



Other Private Equity: Growth, Balanced, Fund of Funds, Secondaries and others
Sources: Preqin, PwC analysis

Global M&A Industry Trends: 2024 Outlook

2024년 M&A 전략

2024년 M&A Outlook

Mega Trend

Macro

저성장 고착화

지속가능성 부각 (Sustainability)

- ESG 부상
- 탄소중립을 위한 전 산업적 변환

Silver 경제 (Demographic Onus)

- 저출생 및 고령화(선진국 위주): 생산가능 인구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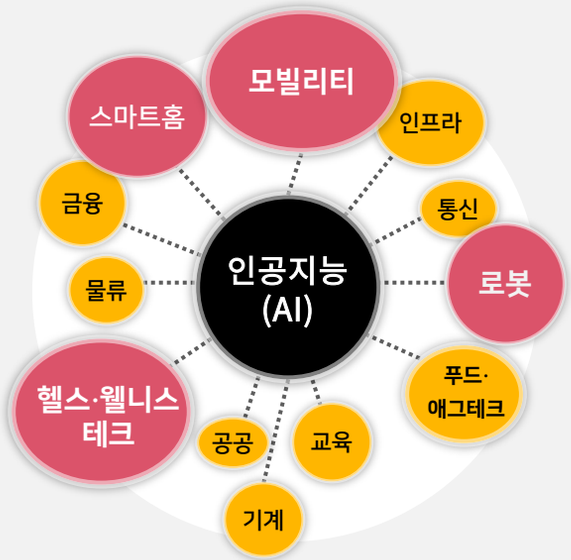
공급제약 (Supply Constraints)

- 탈 세계화(다중블록화): 수요가 있어도 공급이 어려운 시대

+

Industry

전 산업의 인공지능화



M&A 전략: Two Track

기존 사업 수익성 강화

- **All or Nothing:** 非 핵심사업 매각 or 기업인수를 통한 몸집불리기로 규모의 경제 달성
- **자동화:** 인건비 절감 및 고령화 대응
- **공급망 다변화:** 원료의 안정적 조달을 위한 현지 공장/농장/광산 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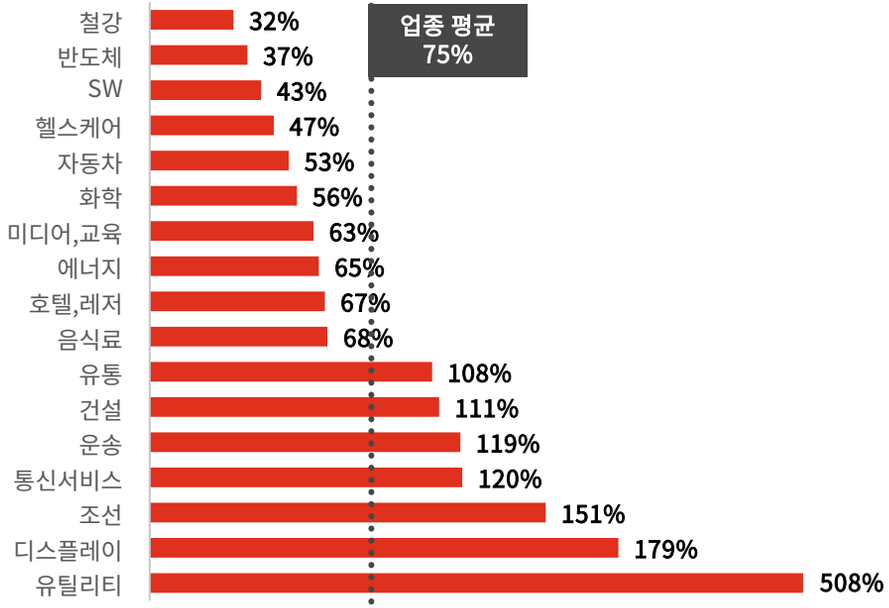
미래산업으로의 전환

- **기후대응**
  - 에너지 전환: 신재생 및 원자력, 수소
  - 리사이클링: 폐배터리, 폐가전 등 재활용
- **첨단기술확보**
  - AI: AI 인프라(데이터센터, AI 반도체) 및 모델, 어플리케이션
  - 로봇: 협동로봇, 물류로봇 등
  - 미래형 모빌리티: 커넥티드, 전기차, 자율주행
  - 디지털 헬스케어: 원격의료, AI 활용한 진단 및 신약 개발
  - 스마트 홈: 에너지 효율화, 보안 강화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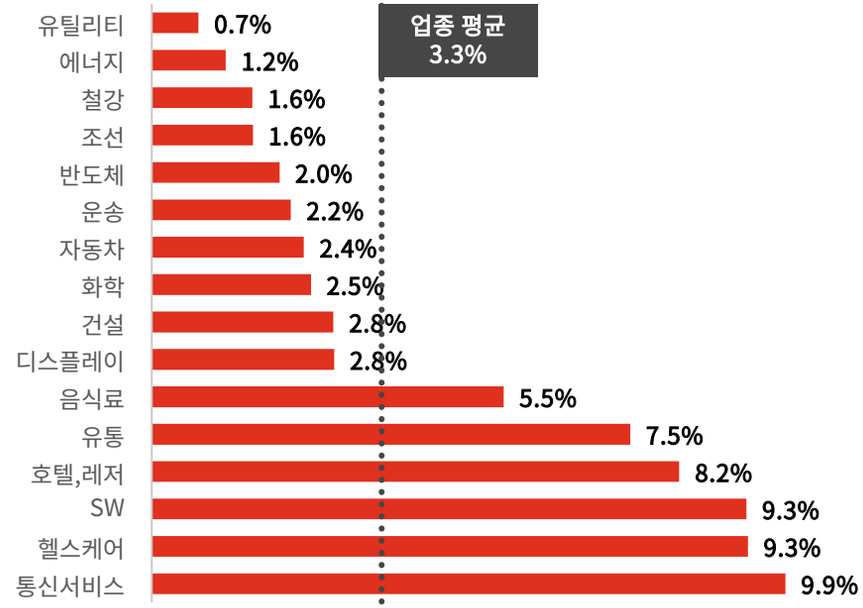
2024년 M&A 전략 – ① 기존 사업 수익성 강화

- **All or Nothing: 비핵심 사업을 매각하거나, 동종 사업군 추가 인수를 통해 규모의 경제 달성**
- **대차대조표 개선을 위한 사업부 구조조정**
  - 부채비율이 높은 디스플레이 · 조선 · 통신서비스 · 운송 · 건설 · 유통 등의 업종은 자산 매각(부동산 포함), 사업부 간 통폐합, 구조화 금융 등을 통한 재무제표 개선 필요
- **자동화 투자(AI, 로봇)를 통한 인건비 절감 및 고령화 대응**
  - 인건비 비중이 높은 서비스업종(통신, 헬스케어, 호텔, SW, 유통 등) 분야는 AI 및 로봇 투자를 통해 비용 절감 가능
  - 제조업도 향후 베이비붐 세대의 대규모 은퇴가 예정되어 있어 생산라인 자동화 투자 필요

업종별 부채비율('23.3Q 기준)



업종별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율('23.1Q~3Q 누적 기준)



Sources: Quantiwise, 전체 상장사 대상, 별도 재무제표 기준

2024년 M&A 전략 – ② 미래 산업으로의 전환

- **CES(Consumer Electronics Show)*에서 보여진 미래 산업 핵심 키워드는 ① 인공지능(AI), ② 모빌리티, ③ 로봇, ④ 디지털 헬스케어, ⑤ 스마트건설**

* 독일 IFA(Internationale Funkausstellung Berlin, 가전 박람회), 스페인 MWC(Mobile World Congress, 세계 최대 모바일 전시회)와 함께 세계 3대 IT 전시회

최근 3년간 CES로 살펴본 미래 유망 산업

	CES 2022	CES 2023	CES 2024
주제	**Beyond the Everyday** 일상을 넘어, 기존 산업의 경계가 무너진다	**Be in IT** (Be the one IN the middle of IT all) COVID-19 이후 불확실성과 급격한 사회 변화를 기술과 협력으로 풀어나가자	**All Together, All On** 모든 기업과 산업이 혁신기술에 전력을 집중하여, 인류의 문제를 해결하자
핵심 키워드	**★로보틱스, AI, 디지털 헬스케어** 스마트홈, 메타버스, 모빌리티, 스페이스테크, ESG	**★AI, 웹3.0/메타버스** 모빌리티, 디지털 헬스케어, ESG	**★ AI(생성형 AI, On-device AI)** 모빌리티, 로봇, 헬스/웰니스 테크, ESG

CES를 통해 본 미래 기술 트렌드

- **AI가 로봇, 모빌리티, 헬스케어 등 전 산업에 적용**되고, 영향력을 확대
- 전기차, 커넥티드, 자율주행 등을 중심으로 **모빌리티 혁신 고도화**
- 고령화에 대한 대안으로 **디지털 헬스케어와 로봇** 산업 발전
-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에너지 효율적 **스마트건설** 확산

2024년 M&A 전략 – ② 미래 산업으로의 전환

지속가능성이라는 기조 下,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기술 융합과 혁신 진행

지속가능성(ESG)

2024년 유망산업에 대한 상세 내용은 삼일PwC경영연구원의 '미리보는 CES 2024: All Together, All on' 및 '2024년 주목해야할 산업'에서 확인 가능

Our Focus

인공지능(AI)이 가져올 산업의 변화

인공지능(AI)이란?

-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이하 AI)이란 인간의 생각하는 방식을 모방하여 입력된 정보를 바탕으로 결과를 판단해 제공하는 기술
- AI는 '머신러닝(Machine Learning)', '딥러닝(Deep Learning)'과 같은 첨단 분석 기술로 발전. 특히 '22년 말 ChatGPT 등장으로 생성형 AI(Generative AI) 시대 개막
  - 생성형 AI는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데이터를 찾고 학습하며, 추론과 의사결정 능력을 지녀 새로운 텍스트, 이미지 등을 빠르게 '창조'해 낼 수 있는 고도화된 기술
  - 생성형 AI는 빠른 속도로 산업 전반에 확산*중이며, 특히, 자율주행차 · 메타버스 · 로봇 등과 연관되어 산업의 혁신을 주도할 것으로 전망

    * 최초 보급 이후 10년 차 기준 침투율: 스마트폰 55%, 소프트웨어 내 클라우드 비중 31%, 생성형 AI 66%(예상) (Bessemer VC)
- 향후 국가 경쟁력은 AI 활용 역량에 따라 좌우될 것이며, 주요국들은 자국의 AI 경쟁력 제고와 글로벌 패권을 차지하기 위한 R&D, 생태계 조성 등에 공을 들이는 중
  - '글로벌 AI 지수'에 따르면 한국의 AI 산업 수준은 62개 국 중 6위(40.3점)이며, 미국(100점, 1위)과 중국(61.5점, 2위)의 양강 체제 지속

인공지능(AI) 구분 및 정의

인공 지능 – Artificial Intelligence

인간의 지능을 통해 수행될 수 있는 행위들을 기계가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기술

머신러닝 – Machine Learning

명시적 규칙 없이 컴퓨터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하고 데이터에서 찾은 패턴을 기반으로 추론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

딥러닝 – Deep Learning

인간의 뇌 신경망을 따라하여 데이터를 계층적으로 학습한 패턴을 기반으로 추론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

생성형 AI – Generative AI

이용자의 특정 요구에 따라 결과를 생성해 내는 인공지능

Source: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삼일PwC경영연구원

글로벌 AI 지수 상위 10개 국가('23년 기준)

종합 순위	국가	실행			혁신		투자		총점
		인재	인프라	운영환경	연구수준	특허 (개발)	정책 (정부전략)	민간투자	
1	미국	100.0(1)	100.0(1)	82.8(28)	100.0(1)	100.0(1)	90.3(8)	100.0(1)	100
2	중국	30(20)	92.1(2)	99.7(3)	54.7(2)	80.6(2)	93.5(3)	43.1(2)	61.5
3	싱가포르	56.9(4)	82.8(3)	85.7(22)	48.8(3)	24.4(5)	81.8(16)	26.2(4)	49.7
4	영국	53.8(5)	61.8(24)	79.5(40)	38.1(5)	19.8(8)	89.2(10)	20(5)	41.8
5	캐나다	46(6)	62.1(23)	93.1(8)	34(7)	18.9(11)	93.4(5)	18.9(7)	40.3
6	한국	35.1(12)	74.4(7)	91.4(11)	24.3(12)	60.9(3)	91.9(6)	8.3(18)	40.3
7	이스라엘	45.5(7)	60.5(28)	85.1(23)	24.8(11)	22.2(7)	31.8(47)	40.5(3)	40
8	독일	57(3)	68.2(12)	90.7(13)	29.3(8)	19.5(9)	93.9(2)	10.3(11)	39.2
9	스위스	44.5(9)	68(13)	81.9(30)	41.3(4)	24.9(4)	9(56)	13.3(9)	37.7
10	핀란드	34.5(13)	73(8)	97.7(4)	27.4(9)	13.1(14)	82.7(15)	9.5(12)	34.9
10개 국 평균		**50.3**	**74.3**	**88.8**	**42.3**	**38.4**	**75.8**	**29.0**	**48.5**

* 괄호( ) 안은 하위 항목별 62개국 중 순위, Source: Tortoise Intelligence, 삼일PwC경영연구원

Our Focus

인공지능(AI)이 가져올 산업의 변화

인공지능(AI) 산업 구조

- AI는 '30년 기준 18조 달러 시장을 형성(7개년 CAGR 36.6%)할 것으로 전망(Statista)

  ※ 주요 시장 규모(IRS글로벌, 세계은행): 반도체 5,830억 달러('22년), 미국GDP 23조 달러('21년)

- 최근 가장 각광받고 있는 생성형 AI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AI의 Value Chain은 크게 ① AI 기술 생산을 위한 인프라(하드웨어, 데이터센터 등), ② 파운데이션 모델*, ③ AI 모델 기반 응용 서비스 및 어플리케이션으로 구분

  * 대규모 데이터셋을 사용하여 사전에 학습되어 있는 일종의 반제품 SW. 어플리케이션 기업들에게 AI 서비스 구축을 위한 API를 제공

- 인프라와 모델 부문은 대규모 투자 비용이 필요한 영역으로, 현존하는 Big player(빅테크, 대기업)들이 대부분의 시장을 선점할 것으로 예상
  - AI 모델 개발에 대한 글로벌 빅테크(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메타, 바이두 등)의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인프라 영역의 반도체, 데이터센터 등에 대한 투자도 각광

- 중장기적으로는 '어플리케이션' 시장 중심으로 새로운 서비스가 창출될 것이며, 진입자(중소기업, 스타트업 포함) 모두에게 상당한 가치 창출의 기회를 제공할 것

AI의 Value Chain 및 주요 Players

AI Value Chain		주요 Players	향후 3-5년 내 신규 진입 기회 크기 수준
서비스	생성형 AI를 활용하기 위한 전문 지식 중심의 서비스 제공		
어플리케이션	경우에 따라, 파운데이션 모델을 확대 또는 미세 조정하여 사용하는 B2B, B2C 제품	스타트업 영역: MDCLONE, Jasper, copy.ai 등 — 인프라 및 파운데이션 API를 활용해 상대적으로 빠르고 저렴하게 서비스를 구축할 수 있어 진입장벽이 낮음	
모델 Hub과 MLOps	파운데이션 모델들을 큐레이팅, 호스트, 미세 조정, 또는 관리하기 위한 도구		
파운데이션 모델	생성형 AI의 기반이 되는 중심 모델(Ex. OpenAI의 GPT)	AI 전문 영역: AI21labs, cohere, OpenAI, ANTHROPIC — 모델의 데이터 학습을 위한 트레이닝에 막대한 비용 필요, 높은 수준의 기술력이 요구돼 스타트업 수준에서 진입이 어려움	
클라우드 플랫폼	컴퓨터 하드웨어로의 접근을 제공하는 플랫폼		
컴퓨터 하드웨어	모델의 훈련과 실행에 최적화된 AI 가속칩(NPU, 뉴로모픽 개발)	거대 기업 장악: NVIDIA, SK하이닉스, AMD, 삼성전자, intel, Google — 이미 대규모 투자가 집행된 산업으로 NVIDIA, MS, 알파벳 등 빅테크들이 대부분의 시장을 장악 중	

서비스 ↑ 파운데이션 ↓ 인프라

Source: 언론보도종합, 각 사, McKinsey, 삼일PwC경영연구원

* 점수 1~5

Our Focus

인공지능(AI)이 가져올 산업의 변화

인공지능(AI)이 가져올 산업의 변화

- **AI는 다른 산업의 발전을 가속화하는 기반 기술이 되어 전 산업의 변화를 초래할 것이며, 특히 로봇 · 헬스케어 · 모빌리티 · 게임 및 엔터 분야에 주목**

산업별 영향도

산업	영향도
로봇 (전 산업)	• 고령화·저출산에 따른 일손 부족, 인건비 상승 흐름 속에서 로봇은 산업을 혁신시킬 핵심 기술 • **AI 접목된 로봇은 최종적으로는 인간의 개입을 필요로 하지 않는 '무인화' 로봇, 즉 스스로 활동할 수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발전할 것** • 초창기에는 공장·물류창고 등을 중심으로 단순 반복 작업 가능한 B2B 向 로봇이 보급된 후, 점차 서비스형 B2C 로봇이 발전할 것
헬스케어	• **(신약개발) 딥러닝을 통한 단백질 구조 해독 등으로 신약개발에 소요되는 시간 획기적 단축** • (**진단/치료**) 딥러닝으로 환자의 유전자 데이터를 분석하고, 대규모 의료영상을 빠르게 처리 → 질병 판독 및 의료진의 치료결정에서 불확실성 감소 • (**예방**) 헬스케어 기관들이 보유한 방대한 의료 데이터를 활용하여, 개인별 질병 발생 확률 예측 & 사전 예방형 치료 제공 • (**서비스**) 헬스 디바이스의 발전과 함께 주요 건강지표들의 지속적 모니터링 & 챗봇을 통한 의료상담 등이 가능해지면서, 원격의료 본격화
모빌리티	• **인포테인먼트·커넥티드를 넘어, 자율주행의 시대를 가져올 것** – 도로 주행 데이터 축적 + AI의 분석능력 향상 → 완성도 높은 자율주행 시스템 구현
게임/엔터	• **(개발) AI를 통한 코딩 자동화를 통해 개발자들의 중복되는 코드 작업 최소화**. 인건비 감소는 기업들의 제작비용을 감소시켜 더 많은 콘텐츠가 개발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진입 장벽을 낮춰 신생업체들의 대규모 유입 유도 • **(콘텐츠) AI는 메타버스와 결합하여, 게임/엔터/교육 분야의 궁극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 – AI를 활용한 디자인 프로세스 간소화로 3D 부문의 급속한 발전 가능. 홀로그램 활성화로 '가상-현실의 경계'가 모호해질 것으로 전망 – 메타버스 활성화로 게임/엔터/교육/광고 분야에 큰 수혜 예상

Our Focus

인공지능(AI)이 가져올 산업의 변화

인공지능(AI)이 가져올 산업의 변화

산업	영향도
Tech	• 하드웨어 – 개인 IT 기기(핸드폰, 태블릿 등)에 온디바이스 AI 탑재되며, 신규 수요 창출 – XR(확장현실)기기 등 신제품 출시 • 소프트웨어 – **(모델) AI는 이제 막 성장궤도에 오른 분야로 아직 절대적인 강자가 없음. 이에 시장 선점을 위한 글로벌 기업들의 개발 경쟁 지속** – **(어플리케이션) AI를 활용하여, 여행/교육/쇼핑/헬스케어 등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 발전** • 반도체 – **AI 확산에 따라 하드웨어 탑재 및 서버 증설을 위한 반도체 전반의 호황** – **특히 AI 반도체*에 대한 중요성 부각되며, 시스템 반도체 부문 핵심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글로벌 거대 기업들의 투자 지속** * AI 반도체 • 대규모 연산을 초고속, 초전력으로 실행하는 효율성 측면에서 특화된 비메모리(시스템) 반도체로, AI의 핵심 두뇌 • (1세대) CPU, GPU → (2세대) NPU:신경망처리장치 → (3세대) 뉴로모픽(Neuromorphic)으로 발전 중. 단, 뉴로모픽은 아직은 기초 연구 단계 수준이며 범용성이 낮음. 현재는 NPU 중심으로 상용제품이 개발됨
금융	• **챗봇(상담 업무)를 넘어서 금융 비서로 AI의 업무 영역 확장** – (고객군) 자연어 처리 역량이 음성인식과 맞물릴 경우, 모바일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연령층까지 고객군 확대 가능 – (업무 영역) 단순 상담 업무 뿐 아니라 자산관리 및 투자 부분에서도 AI의 역할이 확대 될 것

Source: 삼일PwC경영연구원

Global M&A Industry Trends: 2024 Outlook

산업별 M&A Trend 및 2024년 Outlook

[Industry Map] 국내 업종별 실적 점검

- **'23년은 일부 업종(호텔/레저, 은행 등)을 제외하고는 전년 대비 저조한 영업이익 기록**
- **'24년은 新 경제환경(고금리, 공급망 불안 등)에 대한 기업들의 적응도가 높아짐에 따라, 전년 대비 회복 추세로 전환**
  - 글로벌 제조업 경기 개선에 따라, 수출 비중이 높은 IT와 화학의 실적 증가 기대. 반도체 회복 강도가 한국 경제의 Key factor
  - 단, 전반적 업종의 매출과 이익(절대)수준은 여전히 '22년 대비 낮을 것으로 예상

전 업종 실적 현황 및 전망

(단위: 조 원)		매출액					영업이익				
		'21	'22	'23E	'24E	YoY	'21	'22	'23E	'24E	YoY
전 업종		2,620	3,202	2,769	2,958	7%	261.2	231.1	177.7	265	49%
에너지/자원/유틸리티	에너지	141	231	219	225	3%	8.4	16.6	10.6	12.8	20%
	화학	141	179	135	142	5%	15.3	9.4	5.1	7.9	55%
	철강	145	174	119	123	3%	15.4	10.9	6.3	6.5	2%
	운송	82	107	87	92	6%	11	17.4	7	7.4	6%
	유틸리티	116	161	161	164	2%	-4.1	-29.6	-3.6	8	흑전
산업재	자동차	329	403	390	402	3%	16.7	23.5	34.2	33.3	-3%
	건설	131	154	126	125	-1%	8.5	7.2	5.3	5.9	12%
	기계	76	93	84	89	5%	3.7	5.1	6.3	6.6	5%
	조선	41	45	55	64	18%	-5.5	-3.2	0.6	2.7	370%
소비재	음식료	136	158	103	108	4%	8.3	8.6	6.2	7	14%
	유통	83	94	84	89	6%	2.2	2.4	2.3	3	28%
	화장품,의류	89	93	56	61	7%	8.5	7.7	5.4	6.6	21%
	호텔,레저	8	10	7	8	5%	-0.3	0.3	1	1.1	6%
헬스케어	건강관리	56	62	32	37	13%	6.2	5.4	4.2	5.7	37%
금융	은행						29.3	28.5	29.2	30.8	6%
	보험						11.1	10.3	10.3	11.3	10%
IT/통신	반도체	351	383	308	379	23%	68.2	55	-1.2	46.8	흑전
	소프트웨어	58	68	55	62	12%	6	5.5	4.6	6.2	35%
	통신서비스	56	57	58	60	3%	4.1	4.4	4.5	4.7	5%
	디스플레이	48	44	26	31	18%	2.9	-1.2	-2.3	0.3	흑전

Sources: Quantiwise, 전체 상장사 대상('23.01.31 기준), 연결 재무제표

산업별 M&A Trend 및 2024년 Outloo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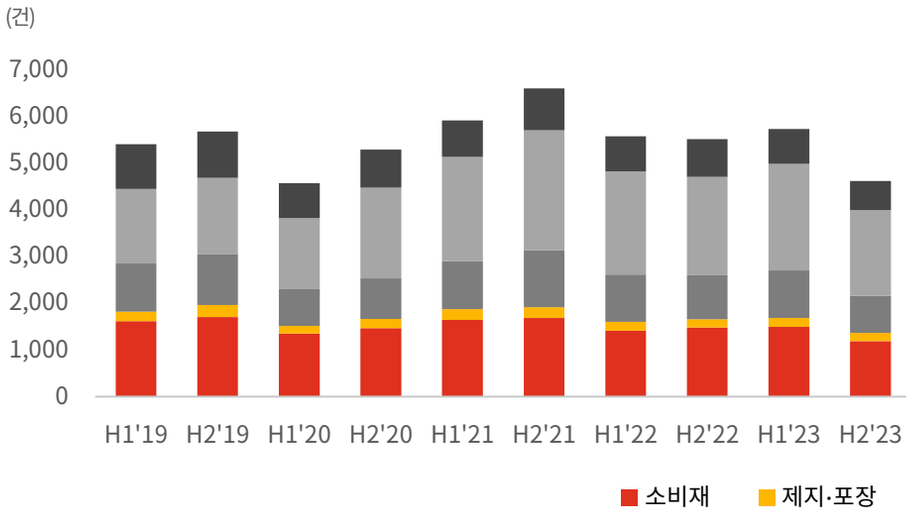
1 소비재

[소비재] 2023년 M&A Review: Glob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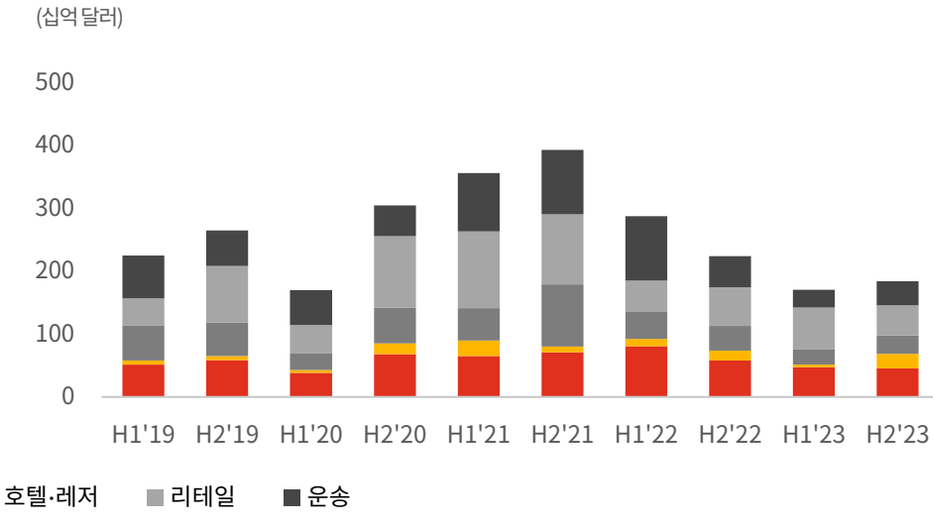
- **경기둔화와 지정학적 갈등, 소비심리 악화로, '23년 소비재 M&A 거래 건수와 금액은 전년 대비 감소한 10,356건(YoY -7%), 3,551억 달러(YoY -31%)**
  - 글로벌 시장 전체(각각 YoY -6%, -25%) 대비 다소 저조한 편이며, 팬데믹 이전인 '19년 대비해서는 거래 건수와 금액 각각 -7%, -28% 감소한 수치
  - 대규모 딜보다 소규모 인수에 주력함에 따라, 건수 대비 금액이 더욱 축소. 자본시장이 침체된 가운데 현금이 풍부한 기업들이 PE 보다 M&A 경쟁력을 지님
- **세부 섹터별로는 전년 거래 금액 대비 운송 -56%, 호텔·레저 -35%, 소비재 -33%, 제지·포장 -1%, 리테일 +4% 순으로 변동**
  - 운송은 전년 대비 가장 높은 감소치(건수 및 금액 각각 -12%, -56%)를 보였는데, 팬데믹 이전인 '19년 대비로도 거래 건수 및 금액이 각각 -29%, -46% 감소
  - 리테일은 전년 대비 거래 금액이 증가한 유일한 섹터(YoY +4%)
  - 호텔·레저는 거래 건수 및 금액 각각 -7%, -35% 감소한 수치를 보였는데, 팬데믹 이전인 '19년 대비해서도 건수 및 금액 각각 -14%, -50% 감소. 이는 엔데믹에도 불구하고, 레저 영역에 대한 글로벌 투자심리가 여전히 위축되어 있음을 의미

소비재 산업: M&A 거래 건수 및 금액_Global

거래 건수



거래 금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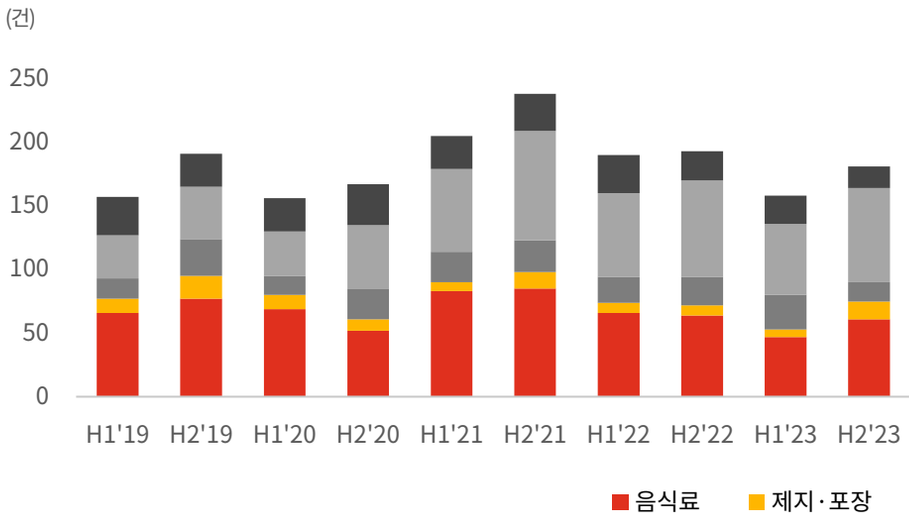
Sources: Refinitiv, Dealogic and PwC analysis

[소비재] 2023년 M&A Review: 국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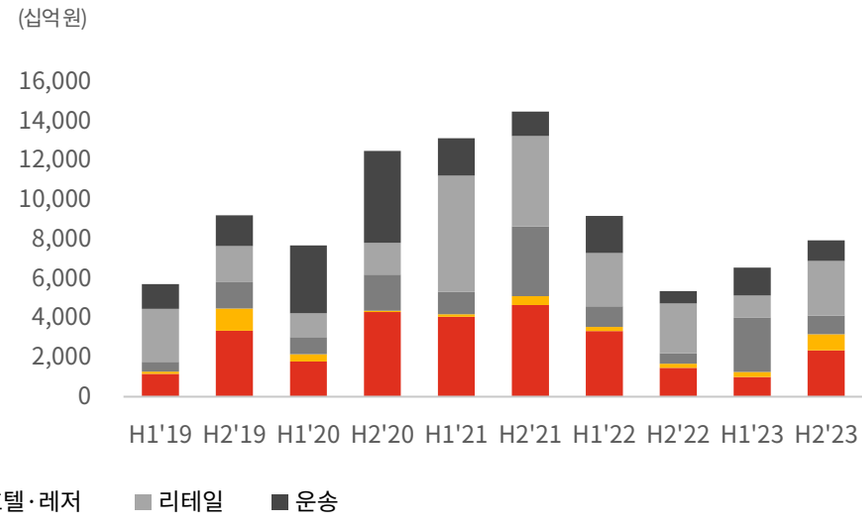
- **'23년 국내 소비재 부문 M&A 거래 건수는 339건(YoY -11%), 거래 금액은 14조 5천억 원(YoY -3%)으로, 한국 시장 전체(각각 YoY -12%, -17%) 대비 선방**
  - 팬데믹 이전인 '19년 대비로는 소폭 감소한 추세(건수 및 금액 각각 -3%, -13%)
  - 이커머스 부문이 엔데믹 이후 성장 둔화를 겪고 있으며, 음식료 또한 인플레이션에 따른 소비자 저항으로 침체 지속(Q감소)
- **세부 섹터별로는 전년 거래 금액 대비 음식료 -33%, 소매유통 -27%, 운송 -5%, 호텔·레저 +130%, 제지·포장 +150% 순으로 변동**
  - 음식료는 거래 금액 기준 가장 높은 감소치(YoY -33%)를 보였으며, 거래 건수 또한 전년 대비 -17% 감소. 인플레이션 지속에 따른 소비자 수요(Q)감소, 원재료가 상승에 따른 비용(C) 증가 등이 투자 심리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
  - 유통은 팬데믹 이전인 '19년 대비 거래 건수가 증가한 유일한 영역(+73%). 최근 온라인 성장세 둔화에도 불구, 코로나-19 이전 대비 가장 큰 변화가 일어난 섹터
  - 호텔·레저는 엔데믹 이후 여행 및 관광 수요 회복에 따라 전년 대비 M&A 거래 금액 큰 폭(+130%)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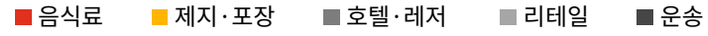
소비재 산업: M&A 거래 건수 및 금액_국내

거래 건수



거래 금액





Sources: Refinitiv, Dealogic and PwC analysis

[소비재] 2024년 M&A Outlook: Global

- **① 고금리가 지속됨에 따라 포트폴리오 조정(디레버리징 중심), ② 신제품·신시장 진출, 핵심 역량 확보, 시너지 창출을 위한 볼트온 거래 증가 전망**

M&A 주요 테마

1. **포트폴리오 최적화:** 비핵심자산을 매각하여 운영을 간소화하고, 리소스 확보 → 신기술, ESG, 공급망, 시장 확대에 대한 투자 지속
2. **디레버리징:** 고금리 지속에 따라 부채감소를 위한 조치 단행. 부동산과 같은 자본 집약적 자산을 대차대조표에서 제거하는 작업 진행
3. **부실기업 M&A:** 특히 소매유통과 숙박업을 중심으로 부실기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2024년 M&A Hotspots

1 유통

- 어려운 시장 상황 대응을 위해 상호보완 가능하고, 시너지 창출 가능한 기업들간의 통합 지속 → 규모의 경제 달성
- 소비자 접근성 향상에 투자(ex. 월마트의 광고회사 투자)

2 음식료

- 포트폴리오 최적화를 위해 사업부간 통합, 신규 브랜드 인수 및 기존사업 매각
- 공급망 안정화 및 ESG(비건, 친환경 포장재 등)는 음식료 업종의 지속적인 관심사

3 포장재

- 친환경 포장재 부문에 대한 규제 당국과 소비자들의 요구 강화
- 지속가능한 패키징 관련 지적 재산/노하우를 보유한 소규모 기업에 대한 대기업들의 인수 의향 증가

4 건강식품

- 고령화, 소득 증가, 예방 의학에 대한 높은 관심으로 건강 식품에 대한 수요 증가
- 주요 기업들(존슨앤존슨, GSK, 화이자 등)은 건강식품사업을 분사하여 독립 성장을 추진 중이며, 분사된 기업은 성장 가속화를 위해 M&A를 지속
- 채널 측면에서는 온라인이 부상하며, 온라인 약국 분야 M&A가 증가

5 패션

- 소비자들의 소비여력 감소로, 패션업계 불황 지속. 이에 따라 Player간 양극화가 더욱 심화될 전망
- 브랜드 보유업체의 포트폴리오 재검토 및 온라인채널(플랫폼) 강화를 위한 M&A 증가 예상

6 반려동물

- 반려동물 입양가구 증가 및 관련 소비 프리미엄화 진행
- 제품 뿐 아니라 서비스(돌봄, 의료 등) 시장도 성장

Sources: PwC analysis

[소비재] 2024년 M&A Outlook: 국내

- **소비 침체가 지속됨에 따라 기업들은 수익성 위주 경영 전략 구사**
  - 기존 사업 수익성 강화를 위해 비핵심 자산 매각, 사업부간 통폐합, 제품 카테고리 축소 등 진행
  - 인구구조 변화 반영하여 자동화 투자(AI, 로봇 등), ESG 대응을 위해 스마트팜 · 친환경 포장재에 대한 관심 지속

2024년 전망 및 M&A 전략: 소비재

구분	업종 전망	M&A 전략
유통	• 물가상승 압력 둔화가 소비 경기 회복으로 이어지는 시차(약 6개월) 고려 시 '24년에도 소비 침체는 불가피 • **양극단의 소비 전망**: 필수품은 저가 구매(트레이딩 다운), 개인의 만족을 위한 고가품은 상향 구매(트레이딩 업) 현상이 동시 진행 • 긴축의 시대를 맞이하여 기업들의 경영 전략 변화: 지난 수년간 이커머스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했던 **유통 기업들이 수익성 위주의 전략으로 선회**했으며, 그룹 내 통합운영을 통해 규모의 경제 추구 (ex. 마트- 슈퍼-편의점 통합 운영)	**수익성 향상을 위한 M&A** • 사업부간 통합을 통해 규모의 경제 달성 • 대차대조표 개선을 위한 자산 매각(비핵심산업, 점포, 부동산 등) • 자동화(AI, 로봇)에 대한 투자로 인건비 감축
음식료	• 외식 물가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가공식품의 가격 경쟁력이 부각될 전망. 기업들은 가성비를 강조한 제품, 외식 수요를 내식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제품(도시락, HMR)으로 매출 회복을 꾀할 것 • 원가율이 상승하면서 적정 수준의 마진을 방어하기 위해 판관비 관리가 중요. 이에 따라 **음식료 산업 전반적으로 공격적 판촉 및 경쟁을 자제하는 상황 지속**	**선택과 집중** • 비핵심 자산 매각, 효율성이 낮은 카테고리 정리 • 간편식/도시락 등 고성장 분야 집중 투자 **푸드테크/ESG** • 높아진 인건비 및 고령화 대비하여 공장 자동화 진행 • 대체식품 및 스마트팜에 대한 중장기 투자 • 친환경 포장재로의 전환
화장품	• **소비 양극화로 중소/중저가 화장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 속, 인디 브랜드 화장품의 질이 상향되는 추세 → 중소 브랜드사와 ODM사 직접적 수혜 •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졌다는 것도 긍정적 포인트(주요 화장품사들의 해외 매출 비중은 50%를 상회하지만, 중국 비중은 25% 이하로 감소)	**브랜드 다각화** • 화장품사 및 PE들의 인디 브랜드 매수 의사 증가 **유통망 확보** • 북미/유럽/동남아 등 최근 수출 증가하고 있는 국가의 유통망 확보 위한 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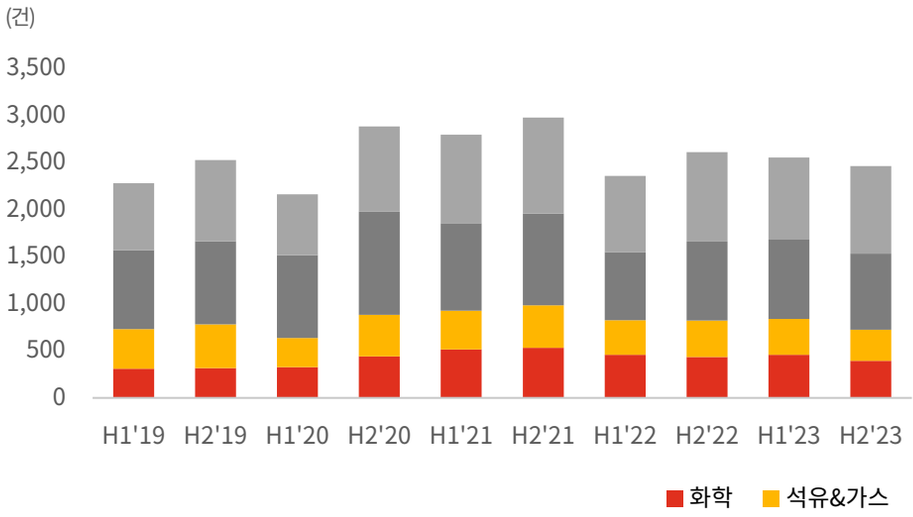
2 에너지·유틸리티 및 소재

[에너지·유틸리티 및 소재] 2023년 M&A Trend: Glob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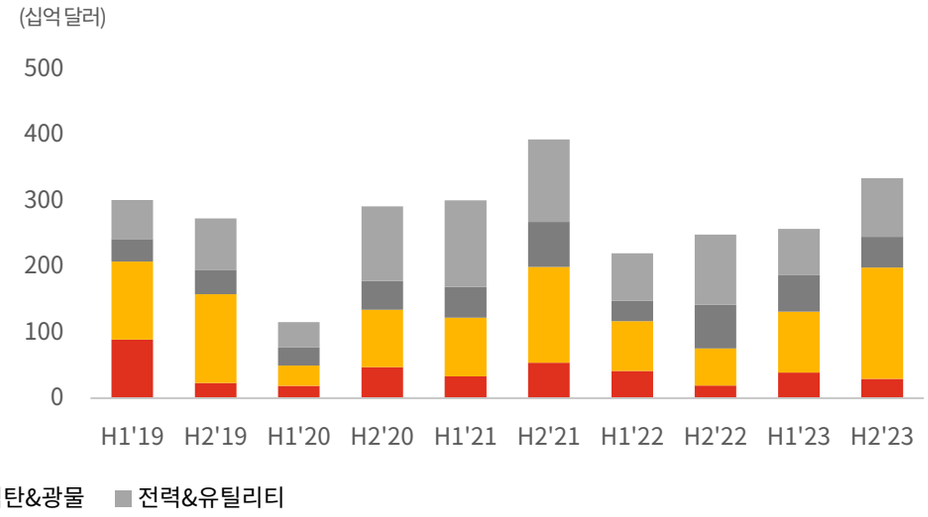
- **'23년 글로벌 에너지·유틸리티·소재(EUR) 부문 M&A 거래 건수는 5,016건(YoY +1%), 금액은 5,914억 달러(YoY +26%) 기록**
  - 글로벌 시장 전체(각각 YoY -6%, -25%) 대비 월등한 수준이며, 팬데믹 이전인 '19년 대비로도 거래 건수와 금액 모두 각각 +4%, +3% 증가
  - 넷제로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 높아지면서 EUR 업종 M&A가 활발. 메가딜 건수가 '22년 6건 → '23년 15건으로 늘어나며 거래 금액 증가에 기여
- **세부 섹터별로는 전년 거래 금액 대비 전력&유틸리티 -11%, 석탄&광물 +5%, 화학 +13%, 석유&가스 +98% 순으로 변동**
  - 전력&유틸리티는 EUR 부문에서 유일하게 거래 금액이 감소했는데, 이는 유틸리티 기업들이 수익 개선을 위해 우선 기존 자산을 재정비하고 에너지 전환 비즈니스로 개편하고자 하여, 하반기까지 M&A 시장이 다소 위축된 것으로 판단
  - 석유 및 가스는 전년 대비 거래 건수 기준 -6% 감소했으나 거래 금액이 +98% 증가했는데, 이는 메가딜이 증가했기 때문. 15건 중 5건(총 1,500억 달러 규모)이 '23년 4분기에 발표(엑슨모빌-파이오니어 인수(595억 달러), 셰브론-헤스코퍼레이션 인수(530억 달러) 등)되며 '24년 M&A 시장에 대한 기대감 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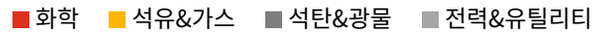
에너지·유틸리티 및 소재 산업: M&A 거래 건수 및 금액_Global

거래 건수



거래 금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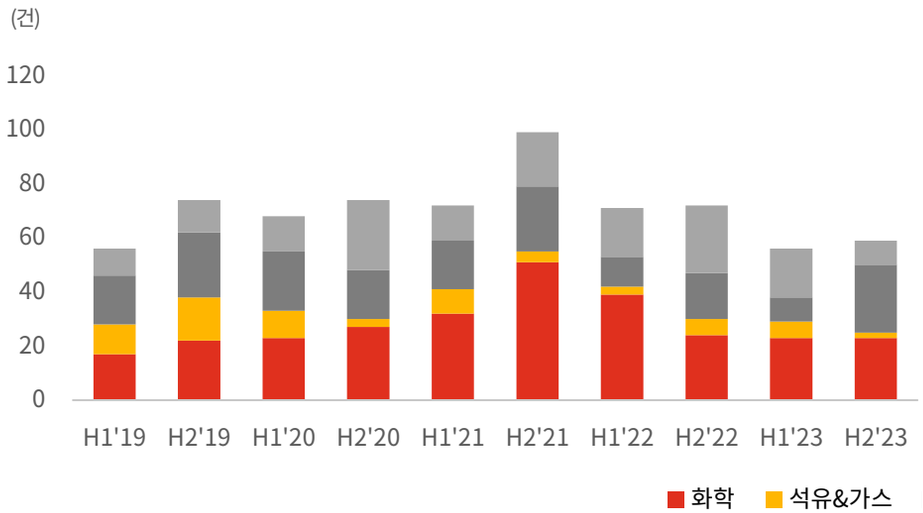
Sources: Refinitiv, Dealogic and PwC analysis

[에너지·유틸리티 및 소재] 2023년 M&A Trend: 국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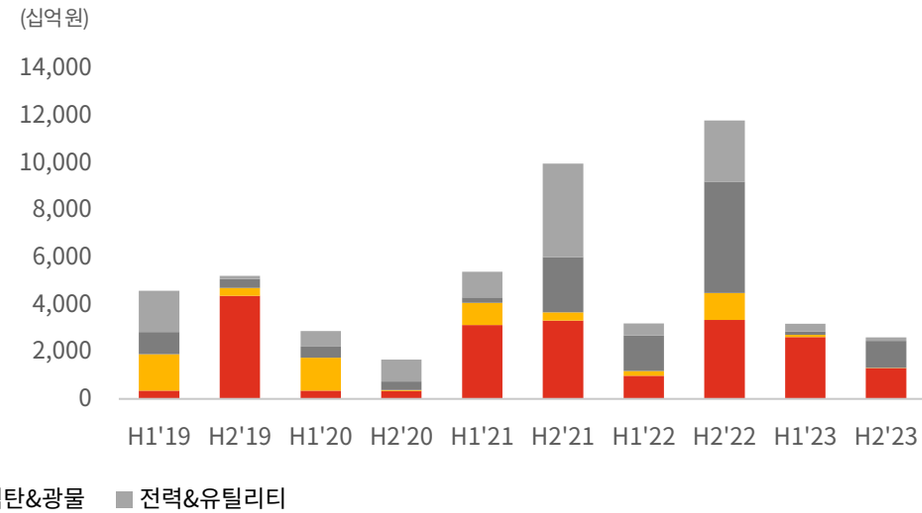
- **'23년 국내 에너지·유틸리티·소재 부문 M&A 건수는 115건(YoY -20%), 금액은 5조 8천억 원(YoY -61%) 기록**
  - 한국 시장 전체(각각 YoY -12%, -17%) 대비 저조한 실적을 보였으며, '19년 대비로도 건수 및 금액 각각 -12%, -47% 감소한 수치를 보이며 전반적으로 둔화된 양상
  - 상당히 우호적이었던 글로벌 EUR 시장(각각 YoY +1%, +26%) 대비 국내 시장은 침체된 모습. 조달비용 상승 등으로 투자 심리가 위축된 상황
- **세부 섹터별로는 전년 거래 금액 대비 석유&가스 -93%, 전력&유틸리티 -85%, 석탄&광물 -79%, 화학 -8% 순으로 감소치가 높음**
  - 석탄&광물은 전년도 메가딜(HMG 글로벌의 고려아연 지분 인수 5,272억원 등)에 따른 기저효과로, '23년 거래 금액이 큰 폭으로 감소한 수치(YoY -79%)를 보이나, 건수는 증가(YoY +21%)
  - 석유&가스는 거래 금액 기준 가장 높은 감소치(YoY -93%)를 보인 가운데 팬데믹 이전인 '19년 대비로도 -96% 감소
  - 그 외에도 모든 섹터들의 거래 금액이 코로나-19 이전 대비 크게 감소(전력&유틸리티 -78%, 화학 -24%, 석탄&광물 -13%,)한 실적을 보이며 침체 지속

에너지·유틸리티 및 소재 산업: M&A 거래 건수 및 금액_국내

거래 건수



거래 금액



화학 석유&가스 석탄&광물 전력&유틸리티

Sources: Refinitiv, Dealogic and PwC analysis

[에너지·유틸리티 및 소재] 2024년 M&A Outlook: Global

- **탄소중립을 위한 포트폴리오 전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핵심 광물 확보 → 전년에 이어 '24년에도 M&A 활황 전망**

M&A 주요 테마

1. **탄소중립:** 에너지 전환(화석연료 → 친환경 에너지), 전기화
2. **정부 지원/규제:** 각국 정부의 세제 혜택 및 자금 지원책(ex. 미국 IRA, 유럽 그린딜) → 배터리, 에너지 저장, 수소연료, 탄소포집 분야 수혜
3. **포트폴리오 최적화:** 고금리 지속으로 부채 부담 증가. 비핵심사업 매각을 통한 재무제표 개선
4. **통합:** 규모의 경제를 위해 사업부간 통합, 동종업종 인수

2024년 M&A Hotspots

1 광물

-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핵심 광물 확보 경쟁
  - 구리/리튬 등의 배터리 관련 광물을 중심으로 현지 광산 투자 지속
  - 이종업계(반도체, 자동차 산업 등) 기업들의 투자 증가

2 전력/유틸리티

- 고금리 지속되며,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포트폴리오 최적화에 관심
- 탄소중립은 유틸리티 업계에 가장 중요한 화두
  - 전기화가 진행되며, 전기충전소 · 열에너지 전기화 · 에너지 저장 부문 투자
  - 재생 에너지에 대한 투자는 지속되지만, 높은 자본 비용 및 건축비 상승으로 풍력 부문은 다소 주춤해질 것
  - 에너지 배분 최적화를 위한 디지털 솔루션 관심 지속

3 석유/가스

- 몇년간의 호황으로 재무 건전성이 개선되며, 풍부한 자금 확보
- 석유업체들은 업스트림 통합과 비핵심 산업 매각을 통한 포트폴리오 최적화 추진
- 청정 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해 M&A를 적극 활용할 것으로 전망

4 화학

- 글로벌 제조업 경기 회복으로 화학 업황 개선되며 M&A 증가 전망
- ESG가 주요 화두
  - 공정효율화 및 기술혁신 통한 사업장 내 온실가스 감축 진행
  - 순환경제 구현을 위해 폐기물 산업, 친환경 플라스틱에 관심

Sources: PwC analysis

[에너지·유틸리티 및 소재] 2024년 M&A Outlook: 국내

- **에너지·유틸리티 및 소재 분야의 가장 큰 화두는 ESG와 자원 확보**
  - ESG: 에너지 전환(친환경 에너지 비중 확대, 전기화), 탄소감축(탄소포집기술, 전력 효율화), 순환경제 구축(리사이클링, 친환경 플라스틱)
  - 자원 확보: 핵심 소재 확보를 위한 전략적 제휴 증가

2024년 전망 및 M&A 전략: 에너지·유틸리티·소재

에너지/유틸리티

정유

- 제한적인 정제설비 증설과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공급 불안 감안시, **'24년에도 업황 강세는 지속될 전망**
- 지난 3년간의 호황기에 축적된 자금여력을 바탕으로, 사업구조 변화 지속. 전기차 보급으로 중장기적 석유 수요 감소가 전망*되는 가운데, **정유 부문 의존도 감소를 위해 친환경 및 신사업(배터리 등) 투자**

* 석유수요처('19년, 글로벌 기준): 육상운송(44%)> 화학(14%)> 항공/선박(13%)> 산업용(13%) 順

유틸리티

- **'Net Zero'를 위한 에너지 전환 지속.** 원자력, 신재생에너지, 수소가 중심축

[전원별 발전량 전망]

연도	구분	원자력	석탄	LNG	신재생	수소	기타	계
2018년	발전량(TWh)	133.5	239	152.9	35.6	0	9.7	570.7
	비중(%)	23.4	41.9	26.8	6.2	0.0	1.7	100
2030년	발전량(TWh)	201.7	122.5	142.4	134.1	13	8.1	621.8
	비중(%)	32.4	19.7	22.9	21.6	2.1	1.3	100
2036년	발전량(TWh)	230.7	95.9	62.3	204.4	47.4	26.6	667.3
	비중(%)	34.6	14.4	9.3	30.6	7.1	4.0	100

Sources: 산업통상자원부('23.01)

M&A 전략

에너지 전환

- 화석연료 비중 감소 vs. 원자력, 신재생에너지, 수소 비중 증가 → 신재생에너지, 수전해 및 탄소포집, SMR(소형모듈원전) 관련 기술에 대한 투자

에너지 배분 최적화: 스마트 그리드

- 스마트계량기, 에너지관리시스템(EMS), 에너지저장 시스템(ESS), 양방향 정보 통신기술, 지능형 송·배전시스템 부문 관심

전기화

- 전기화를 위한 전기충전소, 에너지 저장부문 투자

철강

- 건설업을 중심으로 부진* 지속되며, '24년 철강 수요 증가는 미미
- 탄소중립 시나리오상 중장기 탄소부담 가중되며, 전기로 대체 및 수소환원제철 기술에 대한 투자 지속

* 철강수요('23년, 중국 기준): 건설(57%)> 기계(19%)> 자동차(6%) 順

탄소중립

- 친환경 생산기술(직접환원철/수소환원철) 개발 투자
- 탄소포집기술 및 탄소 재활용 분야 관심

[에너지·유틸리티 및 소재] 2024년 M&A Outlook: 국내_계속

구분	업종 전망	M&A 전략
화학	**화학** • 글로벌 제조업 회복으로 화학 업황 점차 개선될 전망. 그러나 누적된 공급 과잉 감안 시 **추세적 상승보다는 제한적인 회복을 예상** • 글로벌 화학 시황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막대한 가운데, 중국의 자급률 확대로 국내 업체들의 입지가 약해지고 있음. 국내 화학 업체들의 전략 변화가 절실 • 또한 **환경규제 강화로, 바이오플라스틱 · 리사이클링 등에 대한 투자 필요** **이차전지** • 높아진 차량가격 및 보조금 축소로 전기차 수요가 다소 주춤하나, 전기차로의 대전환 방향성은 확실 • **유럽시장을 중심으로 중국업체와의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 중국과의 경쟁에 맞서기 위해 배터리 성능을 높이는 소재 개발 뿐만 아니라 제조 비용을 낮추기 위한 공정 개발(AI 기반 스마트 팩토리, 솔벤트 프리 건식 공정 등)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전망	**ESG** • 화학 공정상의 탄소감축을 위해 에너지 전환 및 탄소포집기술 등 관심 • 순환경제 구축을 위한 리사이클링 관심 지속. 특히 전기차 확산에 따라 폐배터리 분야 부상 • 친환경 플라스틱 투자 **공급망 안정화** • 핵심 금속광물(특히 배터리 부문) 확보를 위해 해외 광산 및 관련 업체 직접 투자/전략적 제휴 •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수직계열화 → 밸류체인 내 관련업체 인수 증가
운송	**해운** • 항구 적체, 컨테이너 물동량 급증에 따른 수급 불균형이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회귀하며 운임 하향 안정화 • CII 등 환경규제 본격화 → 친환경 선박 발주 증가 **육상** • 엔데믹 이후 성장세 주춤, 경쟁 심화, 인건비 증가 등으로 실적 감소 • 코로나-19 기간 동안 물류센터 투자 증가 → 공급 초과로 수익성 악화	**디지털/자동화** • 데이터 기반 물류 대응력 강화: 최적 경로 모색 등 • AI/로봇 등 활용한 물류시스템 자동화 **탄소중립** • 친환경 선박, 친환경 에너지, 차량 전동화 등 투자 **물류센터 매각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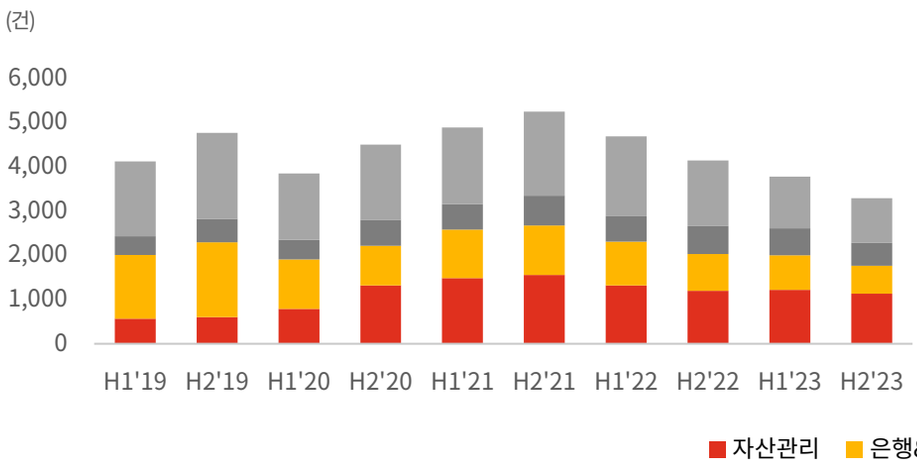
3 금융

[금융] 2023년 M&A Trend: Glob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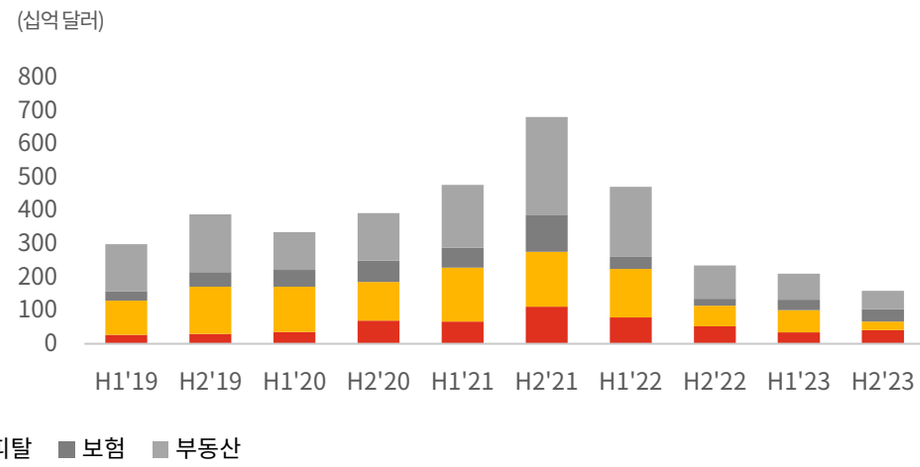
- **'23년 금융 부문 M&A 거래 건수는 7,061건(YoY -20%), 거래 금액은 3,689억 달러(YoY -48%) 기록**
  - 글로벌 시장 전체(각각 YoY -6%, -25%) 대비 저조한 수치이며, 팬데믹 이전인 '19년과 비교시 거래 건수 및 금액 각각 -21%, -46% 감소
  - 거래 건수 대비 거래 금액의 감소폭이 컸는데, 중소규모의 딜이 안전한 전략으로 여겨지면서 메가딜이 '21년 21건 → '22년 7건 → '23년 3건으로 감소했기 때문
- 금융 시장 M&A는 인플레이션, 고금리, 경기둔화 우려,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크게 둔화. 디지털화, ESG, 인력 문제 등 주요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M&A를 주요 전략으로 꼽고 있으나, 규제를 포함한 거시경제 리스크들로 인해 한동안 소극적인 태세를 유지할 것으로 판단
- **세부 섹터별로는 전년 거래 금액 대비 부동산 -57%, 은행&캐피탈 -56%, 자산관리 -43%, 보험 +23% 순으로 변동**
  - 보험은 전년 대비 거래 건수가 -6% 감소했으나, 유일하게 거래 금액이 +23% 증가하며 타 섹터 대비 선방. 이는 포트폴리오 최적화, 새로운 경쟁자 진입(디지털 플랫폼, 테크 기업 등), 디지털 전환 추세에 따른 인슈어테크(Insurtech: IT기술과 접목된 보험업) 기업과의 파트너십 증가 등에 따른 것으로 판단
  - 부동산 시장 침체, 고금리 등에 따른 투자 심리 위축으로 부동산은 거래 건수와 금액 모두 전년 대비 가장 큰 폭으로 감소(각각 -34%, -57%)

금융 산업: M&A 거래 건수 및 금액_Global

거래 건수



거래 금액



■ 자산관리 ■ 은행&캐피탈 ■ 보험 ■ 부동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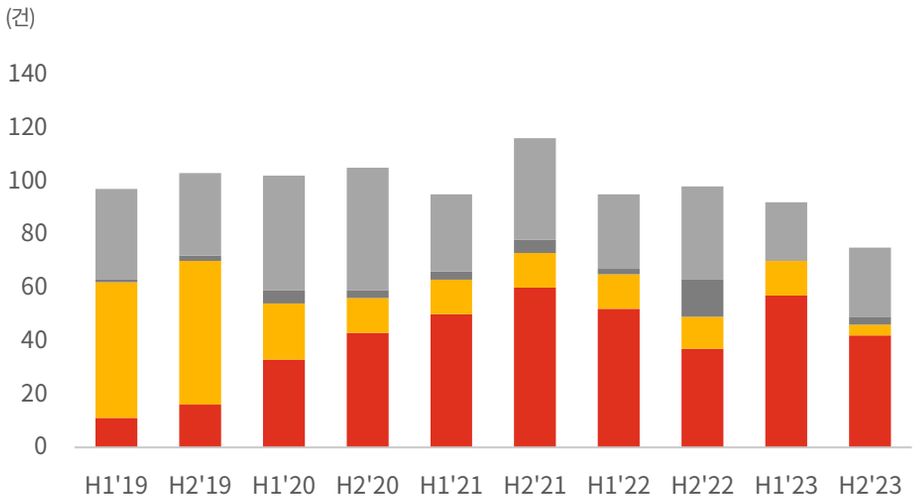
Sources: Refinitiv, Dealogic and PwC analysis

[금융] 2023년 M&A Trend: 국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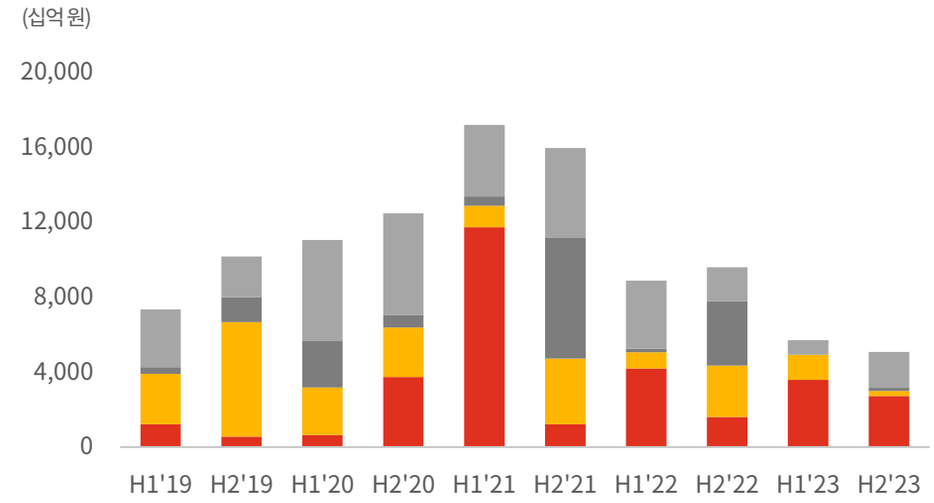
- **'23년 국내 금융 M&A 거래 건수는 167건(YoY -14%), 거래 금액은 10조 8천억 원(YoY -42%)으로 한국 시장 전체(각각 YoY -12%, -17%) 대비 저조**
  - 팬데믹 이전인 '19년 대비로도 거래 건수와 금액 각각 -17%, -45% 감소하며 부진한 실적 기록
- **세부 섹터별로는 전년 거래 금액 대비 보험 -95%, 은행&캐피탈 -55%, 부동산 -52%, 자산관리 +5% 순으로 변동**
  - 보험은 글로벌 시장과 다르게 전년 대비 가장 크게 감소한 수치(거래 건수 -81%, 금액 -95%)를 보였으며, 팬데믹 이전인 '19년 대비시에도 거래금액 -91% 감소. 경기불황으로 인해 계약해지 증가, '24년 금리 인하 가능성 등이 보험사 수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시장 참여자들이 소극적인 태세를 보인 것으로 판단
  - 자산관리는 전년 대비 M&A가 증가한 유일한 업종(거래 건수 +11%, 거래 금액 +5%)으로, '19년과 비교해서는 거래 건수와 금액 각각 +267%, +213% 증가. 가상자산·대체투자 등 새로운 투자영역 확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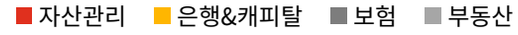
금융 산업: M&A 거래 건수 및 금액_국내

거래 건수



거래 금액





Sources: Refinitiv, Dealogic and PwC analysis

[금융] 2024년 M&A Outlook: Global

- **고금리 지속되며 건전성 관리가 화두. M&A는 '23년 대비 회복되나, 타 섹터 대비 미미할 것. 주요 관심사는 ① 건전성 관리, ② 디지털 전환, ③ ESG**

M&A 주요 테마

1. **건전성 관리:** 부실자산(NPL) 매각 증가, 기존 대출/투자 자산(특히 상업용 부동산)관리 강화
2. **디지털 전환:** AI 활용한 고객 서비스 개선(챗봇, 자산관리 솔루션 등), 온라인 채널 강화
3. **ESG:** 자본 배분 · 투자 · 전략적 실행 등 전반적 활동에 ESG 요소 반영하기 위한 노력

2024년 M&A Hotspots

1 자산운용사

- 성장둔화, 마진축소 환경 속 성장동력 확보에 주력
  - 몸집 키우기: 규모의 경제를 위한 동종업종 인수합병
  - 새로운 역량 확보: ESG, 대체자산, 고유자산 전문사 인수 관심

2 보험

- 비용절감과 자본 효율성 개선을 위한 포트폴리오 매각
- 채널 측면에서는 보험 중개업 회사들의 통합 진행

3 결제(Payment)

- 다른 사업(쇼핑, 게임, 플랫폼 서비스 등)과 높은 시너지 창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결제는 여전히 매력적인 투자 영역
- 사모펀드, 은행, 빅테크 등의 관심 지속되며, Buy & Build 전략 유효

4 핀테크

- 금융사들의 핀테크에 대한 관심은 여전하나, 투자 선호도는 다소 감소
  - 핀테크 기업들의 자본조달 여력 악화되며, 다수가 매물 출회될 가능성 높음
  - 낮아진 Valuation을 기반으로, 매수 적기로 활용 가능

Sources: PwC analysis

[금융] 2024년 M&A Outlook: 국내

- 고금리 환경 속 건전성 악화 우려. **수익성 관리에 중점을 두는 가운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M&A의 주요 동인으로 작용**
  - 포트폴리오 관리: 부실자산(NPL) 매각 및 비핵심 자산 Book-off
  - 디지털 전환: AI 활용 능력 강화(챗봇 등), 온라인 채널 강화 속 점포/인력 축소 지속

2024년 전망 및 M&A 전략: 금융

구분	업종 전망	M&A 전략
은행	• **'24년 실적 최대 변수는 건전성.** 연체율 상승 및 부실처리에 따른 이익 감소 우려 있으나, 지난 3년간의 보수적 충당금 적립으로 충분한 손실흡수능력 확보 • **디지털 전환은 은행의 주요 관심 사항** – 챗봇 등 CS 부문에 대한 투자 지속되며, 이에 따라 점포 축소/인원 감축 등도 진행 – 빅데이터 및 AI 활용한 고객 맞춤형 서비스 제공 추구 • 비은행 강화 전략 마무리 단계. 다만, 해외부문을 통한 성장 전략은 유효	**포트폴리오 관리** • 리스크 관리: NPL 매각 증가, 부동산 PF 집중 관리 및 book-off 방법 모색 • 비핵심 자산 매각 **디지털 전환** • AI 활용 능력 강화: 챗봇(상담 업무)을 넘어서 금융 비서로 AI 영역 확장 준비 • 온라인 채널 강화: 자체 보유 채널 강화 및 신규 채널(인터넷 은행 지분 투자 등) 확보 • 빅데이터 투자: 심사·마케팅·리스크 관리 등의 영역에서 빅데이터에 대한 중요성 부각되며, 관련 기술에 대한 투자 증가 **해외 투자** • 인구구조 변화 등에 따라 국내 성장성 둔화 → 해외 금융사 인수에 대한 관심 지속
증권/ 캐피탈/ 저축은행	• 높은 PF 익스포져로 인한 부담 지속. 또한 고금리 장기화로 인해 기존 대출의 연체율이 상승하며, 건전성 관리에 초점 • **수익 악화에 따라 디지털 전환, 신사업에 대한 관심보다 기존 사업 관리에 중점** → 부실대출기관 및 관련 자산의 매각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자본력을 보유한 기존 Player들은 추가 매수를 통해 몸집 불리기가 가능할 것	
보험	• 고금리 환경 및 신회계제도(IFRS17) 도입에 따라 투자손익 안정화 • 손해율 등의 지표 안정적으로 유지 중이나, **비우호적 금융 환경 반영하여 수익성 위주 경영전략 지속** • 중장기적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해외보험사 투자 및 비보험금융업 진출 등과 같은 다양한 방안 모색 중	

산업별 M&A Trend 및 2024년 Outloo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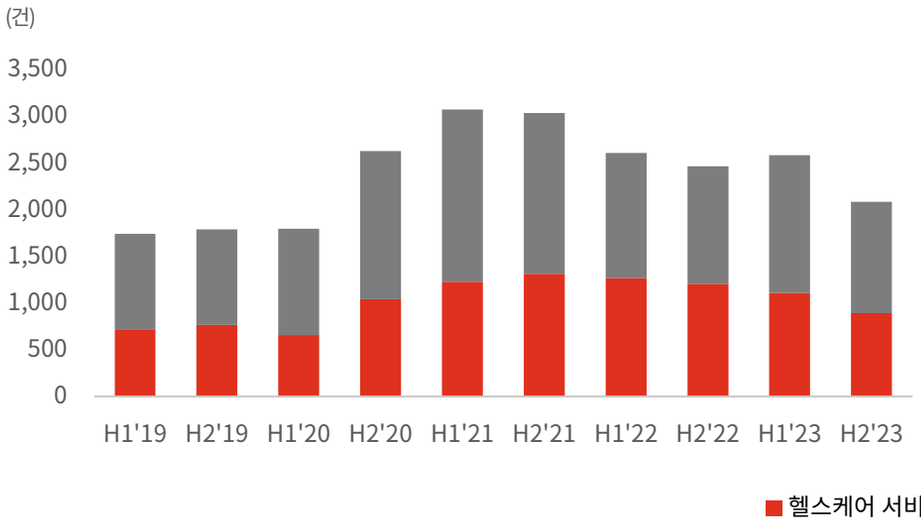
4 헬스케어

[헬스케어] 2023년 M&A Trend: Glob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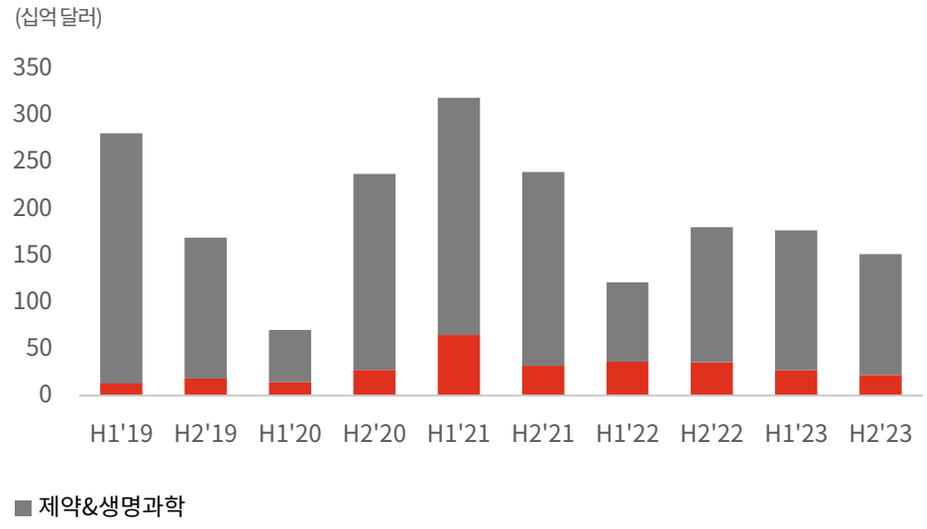
- **'23년 글로벌 헬스케어 M&A 거래 건수는 4,664건(YoY -8%), 금액은 3,281억 달러(YoY +9%) 기록**
  - 글로벌 시장 전체(각각 YoY -6%, -25%) 대비 금액 측면에서 선방. 팬데믹 이전인 '19년 대비로는 M&A 건수는 +32% 증가했으나, 금액은 -27% 감소
- **세부 섹터별로는 전년 거래 금액 대비 헬스케어 서비스 -32%, 제약&생명과학 +22%로, 매우 상이한 실적을 보임**
  - 제약&생명과학은 거래 건수 증가율(YoY +2%) 대비 높은 금액 증가율(YoY +22%)을 보였는데, 이는 메가딜이 '22년 6건 → '23년 11건으로 증가했기 때문
  - 헬스케어 서비스의 거래 건수와 금액은 각각 전년 대비 -19%, -32% 감소했으며, 메가딜이 '22년 3건 → '23년 1건으로 감소
-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 발전에 따라 신약 개발, 혁신 의료기기 등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헬스케어 M&A 시장은 점차 회복세를 보일 것. 거대 제약사들은 중소규모의 바이오테크 업체들을 인수하여 제약 파이프라인을 채우고자 하며, 당뇨, 체중 감소, 정밀의약에 대한 관심 증가**

헬스케어 산업: M&A 거래 건수 및 금액_Global

거래 건수



거래 금액



헬스케어 서비스 제약&생명과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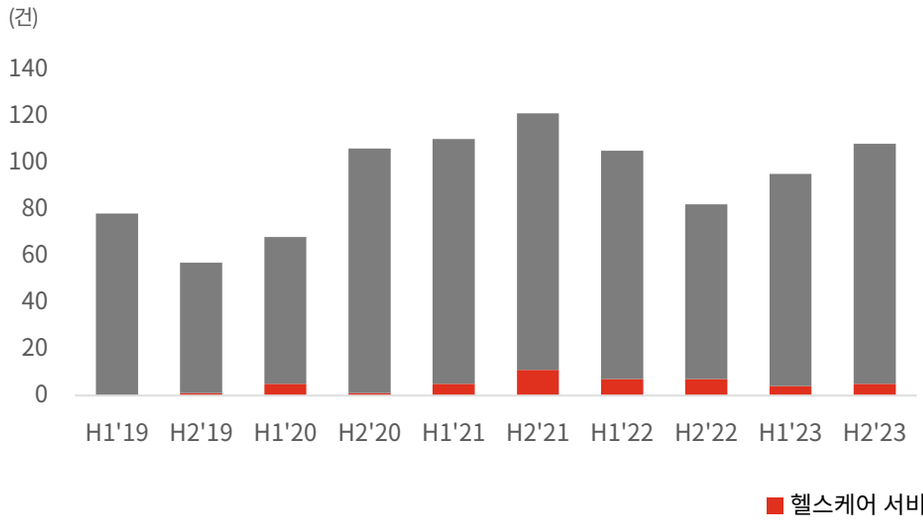
Sources: Refinitiv, Dealogic and PwC analysis

[헬스케어] 2023년 M&A Trend: 국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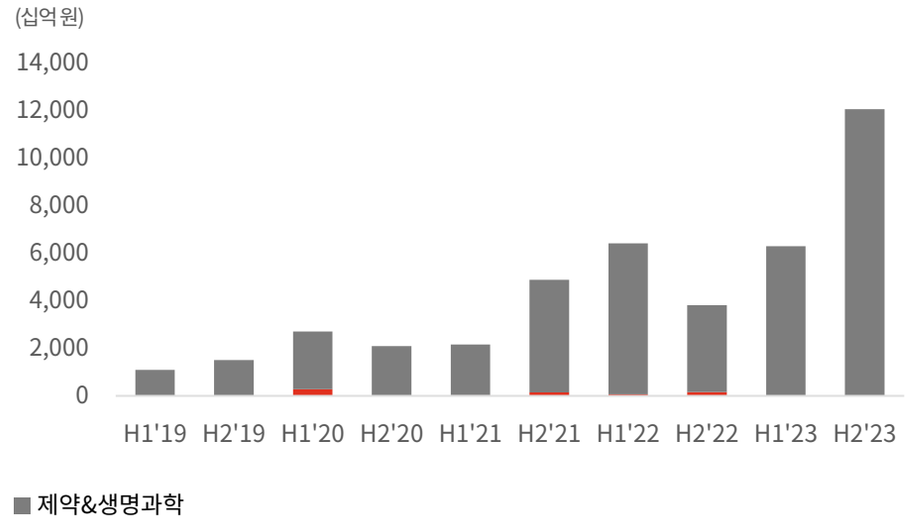
- **'23년 국내 헬스케어 부문 M&A 건수는 203건(YoY +9%), 금액은 18조 4천억 원(YoY +75%)**
  - 한국 시장 전체(각각 YoY -12%, -17%) 대비 높은 실적을 보였으며, 팬데믹 이전인 '19년 대비로도 대폭 증가한 수치(거래 건수와 금액 각각 +50%, +530%)
- **세부 섹터별로는 전년 거래 금액 대비 헬스케어 서비스 -95%, 제약&생명과학 +78%로, 매우 상이한 실적을 보임**
  - '23년 국내 M&A 거래에서 제약&생명과학 부문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 셀트리온 헬스케어 합병(약 10.3조 원), 오스템임플란트(약 2.9조 원), 이오플로우(약 1.3조 원) 인수 건이 주효했던 것으로 판단
  - 국내의 경우 글로벌 대비 헬스케어 서비스 부문의 약세가 두드러짐. 전체 헬스케어 M&A에서 헬스케어 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중은 글로벌의 경우 건수 기준 43%, 금액 기준 15%인 반면, 국내는 각각 4%, 0.1%에 불과. 이는 글로벌 대비 국내 컨슈머헬스, 디지털 헬스케어 등의 산업 성숙도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
    반면 제약&생명과학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21년 97.6% → '22년 98% → '23년 99.9%로 상당히 높은 수준을 유지

헬스케어 산업: M&A 거래 건수 및 금액_국내

거래 건수



거래 금액



헬스케어 서비스 제약&생명과학

Sources: Refinitiv, Dealogic and PwC analysis

[헬스케어] 2024년 M&A Outlook: Global

- **'23년을 저점으로 M&A 시장 회복 전망. ① 비핵심 자산 매각, ② R&D 파이프 라인 보강, ③ 디지털 혁신에 주력**

M&A 주요 테마

1. **포트폴리오 최적화:** 비핵심 자산 매각을 통한 투자여력 확보
2. **R&D 파이프 라인 보강:** 주력 약품들의 특허 만료가 임박함에 따라, 파이프라인 공백을 메우기 위해 중견 바이오테크사 인수 추진
3. **디지털 혁신:** 신약 개발을 위한 AI 기술 투자, 디지털 헬스케어(원격의료, 헬스 디바이스 등), 로봇을 접목한 의료 서비스의 첨단화
4. **부실 의료기관 M&A:** 운영 및 유동성 위기 겪는 의료기관 매물 증가

2024년 M&A Hotspots

1 제약 및 생명공학

- 파이프라인 보강을 위한 생명공학 기업 인수
  - 대형 제약사들은 몇 년 안에 주력 의약품의 특허 만료에 직면
  - 성장동력을 위한 파이프라인 보강 필요하여, 특히 GLP-1(당뇨 및 비만치료제)에 관심 집중
- CRO(임상시험수탁), CDMO(위탁개발생산) 관심: GLP-1 기술 보유 기업일 경우 더욱 주목 받을 것
- 포트폴리오 최적화: 비핵심자산 매각을 통한 자금 확보
- AI 투자: 신약개발 시간 및 비용 감축을 위해 AI 기술 투자

2 헬스케어 서비스

- 부실 의료 기관 매각 증가
  - 팬데믹 기간 이루어진 정부 지원 축소되면서 부실화된 의료기관 증가. 또한 인력 부족으로 운영난을 겪는 병원들 매물화 전망
- 디지털 투자
  - 인력난 및 의료원가 인플레이션, 정부 지원 감소 등에 대한 해결책으로 디지털 기술 부상: 원격 진료, 헬스테크, 디지털 의료분석
  - 헬스 디바이스와 접목된 예방의학에 관심 증가
- **컨슈머헬스 분야 강세**
  - 고령화에 따라 건강기능식품, 영양제 등 컨슈머헬스 기업 투자 매력도 상승
  - 특히 최근 분사된 컨슈머헬스 전문기업, 비처방 일반의약품 기업 등에 관심

Sources: PwC analysis

[헬스케어] 2024 M&A Outlook: 국내

- 엔데믹 이후 헬스케어 업종 내 실적 격차 심화 → **바이오테크의 낮아진 Valuation 下, 신성장동력 찾기 위한 대형 제약사의 M&A 니즈 증가**
  - R&D 파이프라인 확보 및 컨슈머헬스, 디지털에 대한 투자. 특히 신약 개발 및 진단 분야 AI 기술에 관심
  - 자금 조달에 난항을 겪는 바이오테크사 위주로 매물 증가

2024년 전망 및 M&A 전략: 헬스케어

구분	업종 전망	M&A 전략
제약/ 생명공학	**대형 제약사 및 CDMO** • 팬데믹 종료 이후에도 안정적인 실적 시현 •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해 사업 포트폴리오를 전문 의약품에만 한정하지 않고, 혁신 IT 기술, R&D 파이프라인 강화, 사업영역 확(화장품, 건기식)에 관심 **바이오테크** • 경기침체 및 팬데믹 종료(진단시약 부문 매출 급감)로 인해 실적 악화. 자금조달 및 운용의 어려움으로 임상 진행에 난항. R&D 축소, 임상 프로젝트 중단 등을 발표하며 운영 효율화 추진 중	**제약: 밸류체인 전 과정에서 M&A 증가** • 대형사들은 파이프라인 및 신성장동력 확보 위해 혁신적인 바이오 테크기업, CDO/CMO 인수 관심 **바이오: 낮아진 Valuation으로 인수 매력도 증가** • 최근 유동성 위축으로 현금 흐름이 좋지 않은 바이오 기업의 파이프라인 가치 하락. 낮아진 Valuation으로 제약 및 일부 대기업의 바이오 기업 인수 니즈 증가 **디지털 투자** • 신약 개발 및 판독/진단분야 AI 기술, 수술로봇 투자 **컨슈머헬스: 신시장 진출 모색** • 친환경 건기식, 더마 화장품, 에스테틱 의료기기 등 Health&Beauty 분야에 관심 집중 • 내수 시장 경쟁 심화로 프리미엄제품 개발, 해외 진출, 일반 의약품과 연동 등 새로운 전략 필요
헬스케어 서비스	**헬스케어 서비스** • 헬스케어 서비스 영역이 유전정보분석, 디지털 치료제, 원격의료 등으로 광범위하게 확대. 다만 해외에 비해 국내시장은 상당히 더디게 진행되고 있어, 아직 초기 단계에 불과 • 향후 디지털 기술 발전과 소비자의 능동적 참여 등으로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 및 예방 목적의 헬스케어 서비스가 부상할 것. 디지털 헬스케어 업체-병원의 전략적 연계, M&A 등 주목 **컨슈머헬스** • 고령화, 질병 예방에 대한 관심증가로 컨슈머헬스 산업 인기 지속 • 다만, 내수시장 경쟁 과열로 신시장 개척 필요성 증대	

산업별 M&A Trend 및 2024년 Outlook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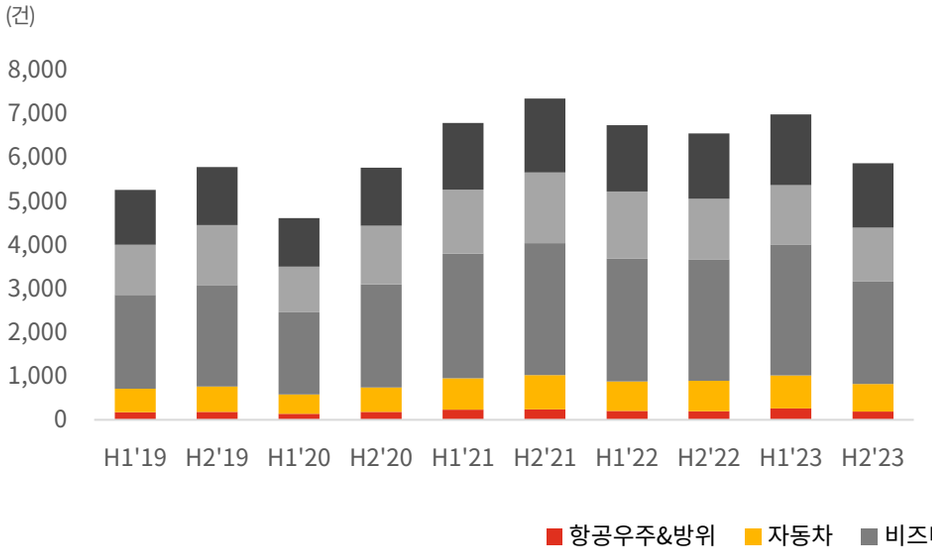
산업재 및 자동차

[산업재 및 자동차] 2023년 M&A Trend: Glob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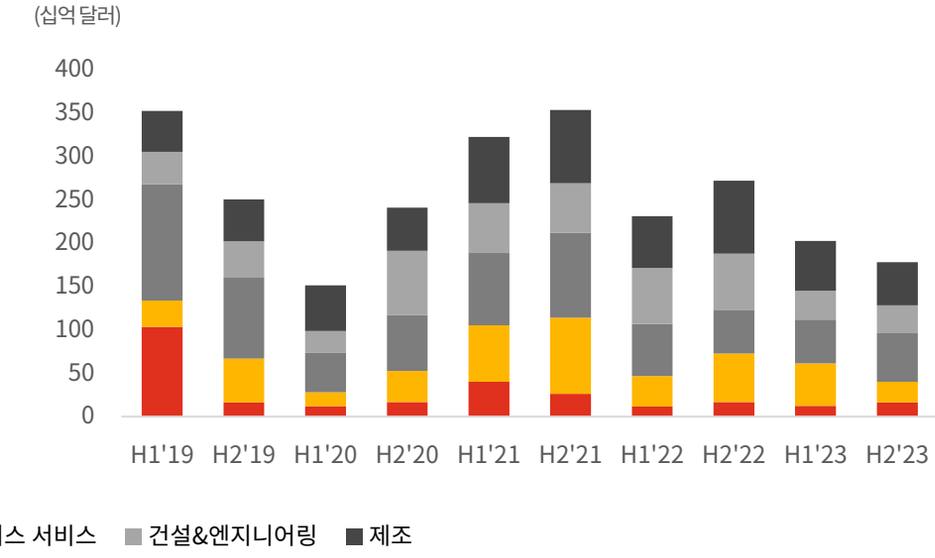
- **’23년 산업재 및 자동차 산업의 M&A 거래 건수는 12,882건(YoY -3%), 거래 금액은 3,806억 달러(YoY -24%)**
  - 글로벌 시장 전체(각각 YoY -6%, -25%) 대비 소폭 선방했으며, 팬데믹 이전인 ’19년과 비교시 거래 건수는 +16% 증가한 반면 금액은 -37% 감소
- **세부 섹터별로는 전년 거래 금액 대비 건설&엔지니어링 -50%, 제조 -25%, 자동차 -20%, 비즈니스 서비스 -3%, 항공우주&방위 +1% 순으로 변동**
  - 항공우주&방위는 거래 건수 기준 전년 대비 +13% 증가, ’19년 대비 +30% 증가하며 가장 높은 증가율 기록. 다만, 거래 금액 기준으로는 전년 대비 +1% 증가하고, ‘19년 대비로는 -76% 감소한 수치를 보여, 소규모 딜 위주였던 것으로 보임
  - 건설&엔지니어링은 거래 건수와 금액 모두 각각 전년 대비 -11%, -50% 감소하며 가장 높은 감소치를 보임. 이는 고금리 지속으로 인한 부동산 프로젝트 지연, 건설사 채무 불이행 우려 점증 등에 따른 것으로 판단됨

산업재 및 자동차 산업: M&A 거래 건수 및 금액_Global

거래 건수



거래 금액



항공우주&방위 자동차 비즈니스 서비스 건설&엔지니어링 제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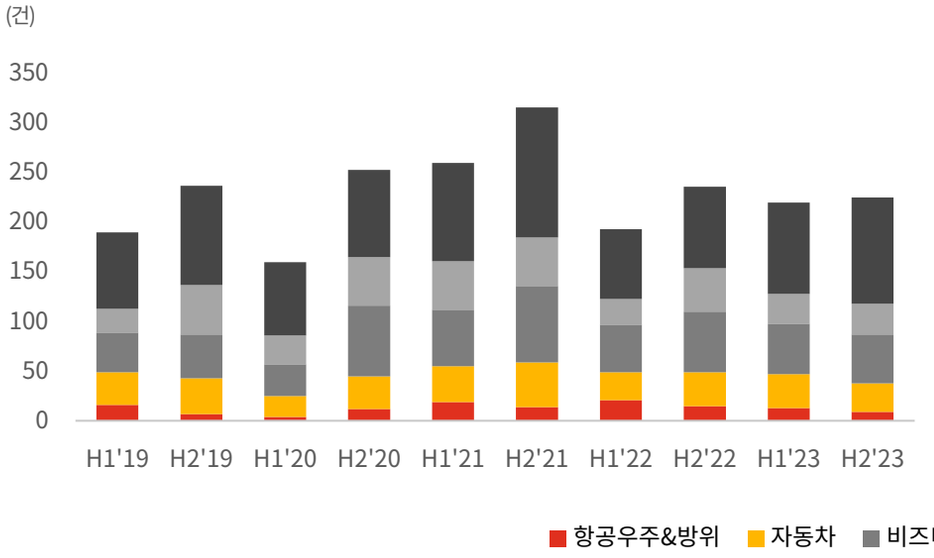
Sources: Refinitiv, Dealogic and PwC analysis

[산업재 및 자동차] 2023년 M&A Trend: 국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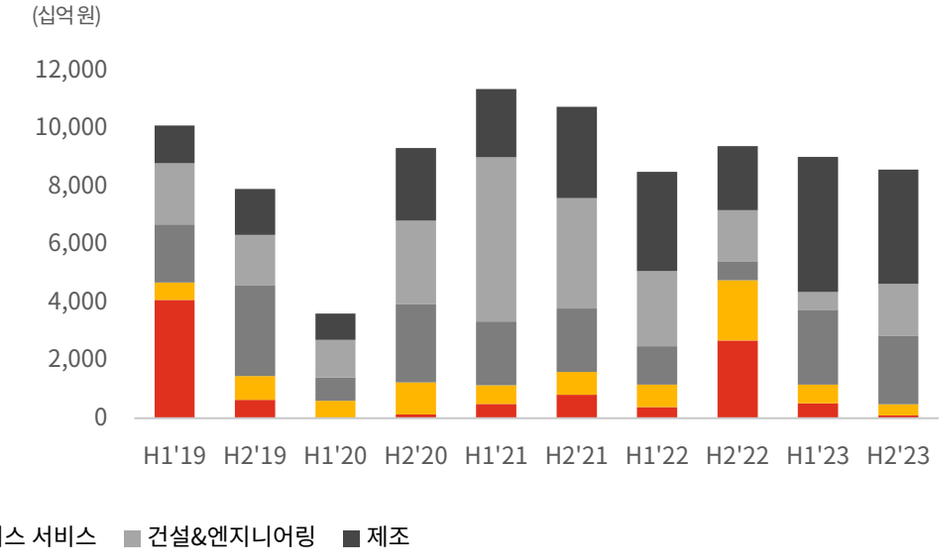
- **'23년 산업재 및 자동차 산업의 M&A 거래 건수는 445건(YoY +4%), 거래 금액은 17조 6천억 원(YoY -3%)**
  - 한국 시장 전체(각각 YoY -12%, -17%) 대비 선방했으며, 팬데믹 이전인 '19년 대비로는 거래 건수 +4% 증가, 금액은 -13% 감소한 수치
- **세부 섹터별로는 전년 거래 금액 대비 항공우주&방위 -80%, 자동차 -64%, 건설&엔지니어링 -45%, 제조 +49%, 비즈니스 서비스 +141% 순으로 변동**
  - 제조업은 '19년 거래 금액 대비 유일하게 증가(+168%)한 섹터.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 추세가 강화되며, 포트폴리오 최적화를 위한 비핵심 자산 매각 및 강력한 R&D 역량을 지닌 업체에 대한 매수 의지가 증가한 것으로 판단
  - 항공우주&방위는 거래 건수와 금액 모두 전년 대비 제일 낮은 수치를 기록(각각 YoY -40%, -80%)했으며, 팬데믹 이전인 '19년 대비로도 낮은 수치(각각 -4%, -89%)를 나타냄. 이는 항공우주 부문에 대한 글로벌 시장의 높은 관심과 대비되는 모습

산업재 및 자동차 산업: M&A 거래 건수 및 금액_국내

거래 건수



거래 금액



항공우주&방위 자동차 비즈니스 서비스 건설&엔지니어링 제조

Sources: Refinitiv, Dealogic and PwC analysis

[산업재 및 자동차] 2024년 M&A Outlook: Global

- **비핵심 자산 매각을 통한 ① 포트폴리오 최적화, ② 신기술 투자, ③ 공급망 안정화, ④ ESG 대응에 주력**

M&A 주요 테마

1. **포트폴리오 최적화:** 비핵심자산 및 부채비율 높은 사업부 매각. 특히, 자동차 및 건설 분야 중소형 부실기업 통폐합 전망
2. **신기술 투자:** AI, 로봇, 전기차 배터리 관련 기술
3. **공급망 안정화:** 수직계열화를 위한 인수합병, 주요 업체 전략적 제휴 증가. 정부 지원 下 리쇼어링 및 니어쇼어링
4. **ESG:** 에너지 전환 및 효율화, 산업장비 전기화

2024년 M&A Hotspots

1 항공우주/방위

- 상업용 항공우주 부문은 '24년까지 글로벌 경제 성장률보다 빠른 성장세를 이어갈 것. 지정학적 갈등 확산으로 인해 방위분야도 높은 성장 지속
- 초음속, 로봇공학, 드론 등에 대한 투자. 숙련된 인재 확보를 위한 M&A 증가

2 자동차

- 포트폴리오 최적화를 위한 비핵심자산 매각
- 미래형 모빌리티를 위한 투자: 전기차, 커넥티드, 차량 공유
- 공급망 안정성 확보 위한 M&A 지속. 기술 부문뿐 아니라 자동차 배터리 필수 광물 확보를 위한 적극적 움직임

3 건설/엔지니어링

- 고금리, 지정학적 불안으로 '24년 중반까지는 M&A 부진 지속될 것으로 전망
  - 주택 부문도 부진하지만, 상업용 건설 부문 부진이 더욱 심화. 창고/공장 건설 비중이 높은 건설사일수록 어려움 가중
- 신기술 투자: 설계자동화, 지능형 운송, 전력/통신 전문 기업 인수 관심
- ESG: 건설 과정의 탄소 감축 기술, 건축 폐기물 전문 업체 M&A

4 제조/기계

- 규모의 경제 추구: 기계 및 장비 니치마켓 인수합병
- 신성장 동력 확보: AI, 3D프린팅, 로보틱스, 예측적 유지보수
- 공급망 안정화: 공급망 다각화, 리쇼어링 및 니어쇼어링
- ESG: 탈탄소화 기술, 재생 에너지, 산업장비 전기화 관련 투자

Sources: PwC analysis

[산업재 및 자동차] 2024년 M&A Outlook: 국내

- 미래산업으로의 전환을 위한 포트폴리오 최적화 진행. **주요 관심사는 공급망 안정화, 신기술, 자동화, 탈탄소화**
  - 공급망 안정화: 자동차 부문의 주요 화두. 전반적 부품 공급 안정화 추진하는 가운데, 배터리 부문에 관심
  - 신기술 확보: AI, 로봇, 전기화에 집중적으로 투자. HW뿐 아니라 SW에 대한 투자 증가
  - 탈탄소화: 추진동력(에너지원) 변화, 에너지 효율화 기술 관심

2024년 전망 및 M&A 전략: 산업재 및 자동차

자동차

완성차

- '24년에도 선진국 중심으로 판매 회복세가 이어지겠으나, 성장 트리거는 가격 인하가 될 가능성이 높음. 이에 따라 완성차들은 지난 3년간의 호황을 정리하며, 향후 가격과 수요의 최적점을 찾아야 하는 시점 도래
- 각국 정부 재정적자에 따른 보조금 축소로, 전기차 확산이 다소 주춤하나, 미래차로의 전환 방향성은 뚜렷. 전동화·커넥티드·자율주행에 대한 관심

부품사*

- 중대형 부품사: 코로나-19 기간 동안 축적된 재원을 바탕으로 미래차에 대한 투자 지속
- 소형 부품사: 수익성 악화 속 매물 증가 전망

[업체별 이익률 비교]

	'19	'20	'21	'22	'23E
완성차	3.4%	2.7%	6.3%	7.4%	10.4%
대형부품사	4.8%	3.6%	4.1%	4.0%	5.0%
중형부품사	4.4%	3.5%	3.8%	4.1%	-
소형부품사	1.5%	1.3%	1.1%	2.0%	-

Sources: Quantiwise, 자동차 부문 상장사 대상

포트폴리오 최적화

- 모빌리티 대변혁을 위한 투자 지속. 비핵심 자산 매각 및 신성장동력에 대한 투자 집중. 중소형 부품사를 중심으로 구조조정형 or 통합추진형 M&A 증가

탈탄소화/미래차 투자

- 탄소절감을 위한 저탄소차량(전기차, 수소차)에 대한 투자 지속
- 미래차 관련 SW(커넥티드, 차량공유 등) 기술 확보 위해 관련 기업 인수 및 전략적 제휴 증가

공급망 안정화

- 전반적 밸류체인 안정화를 추구하는 가운데, 특히 배터리 부문에 주력
- 각국 정부의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현지 공장 증설

자동화

- 고령화 및 인건비 상승에 대비 자동화 투자 → AI, 로봇

* 대형부품사: 매출액 3조 원 이상, 중형부품사: 1조 원 이상~ 3조 미만, 소형부품사: 1조 원 이하

[산업재 및 자동차] 2024년 M&A Outlook: 국내_계속

<table>
<tr><th>구분</th><th>업종 전망</th><th>M&A 전략</th></tr>
<tr><td>조선</td><td>• 선박 부문 환경규제 본격화 → 친환경 선박 발주 증가로, 조선업 Up-Cycle 지속
• 규제 대응을 위해 친환경선박기술 개발 가속화
• 조선소 인력부족 이슈 지속되며, 자동화 투자 관심</td><td>친환경 선박 기술
• 오염저감/고효율 선박: 탄소포집장치, 운항효율 최적화(디지털 선박, 무인선박 등)
• 친환경 에너지 추진선: LNG, 메탄올, 암모니아, 수소
자동화
• 인력부족 대응 위해 AI, 로봇 등 생산 자동화 추진</td></tr>
<tr><td>건설</td><td>• 고금리, 공사비 증가 등으로 자금 압박을 느끼는 일부 기업 매물화 될 것
• 국내 주택부문 침체 지속되며, 해외수주에서 돌파구를 찾을 것으로 전망
• 대형 업체들은 호황기 수익을 바탕으로, 에너지 전환/전력중개/미래 모빌리티 등 다양한 분야 신사업 진행
[주요 건설사 신사업 추진 현황]
<table>
<tr><th>업체명</th><th>분야</th><th>상세</th></tr>
<tr><td rowspan="3">현대건설</td><td>해상풍력</td><td>6건 개발사업 운영</td></tr>
<tr><td>SMR(소형모듈원전)</td><td>홀텍社와 협력해 공동 개발 중. ’24년 상용화 목표</td></tr>
<tr><td>전력중개</td><td>모비스와 VPP(Virtual Power Plant: 가상 발전소) 계약</td></tr>
<tr><td rowspan="2">삼성ENG</td><td>암모니아 합성/분해</td><td>5건 벤처투자 완료</td></tr>
<tr><td>탄소포집</td><td>탄소포집 분야 글로벌 기업들과 MOU 체결</td></tr>
<tr><td>GS건설</td><td>탄소포집</td><td>바스프, 에어리퀴드 등 글로벌 기업들과 MOU 체결</td></tr>
<tr><td>대우건설</td><td>UAM(도심항공교통)</td><td>제주항공과 컨소시엄 구성하여, ’25년 UAM 상업화 준비</td></tr>
</table></td><td>구조조정
• 건설업 침체 속 유동성 위기 겪는 건설사 및 사업부지 매물화
• Valuation 하락으로 매력적인 사업지 매입 기회
해외 부문 경쟁력 강화
• 국내 주택부문 둔화로, 해외수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해외 부문 강점을 가진 업체에 관심 증가
ESG
• 친환경 공장 및 스마트 시티(미래 모빌리티, 에너지 효율화 등) 건축 기술
• 대체 에너지, 탄소저감 기술</td></tr>
</table>

산업별 M&A Trend 및 2024년 Outlook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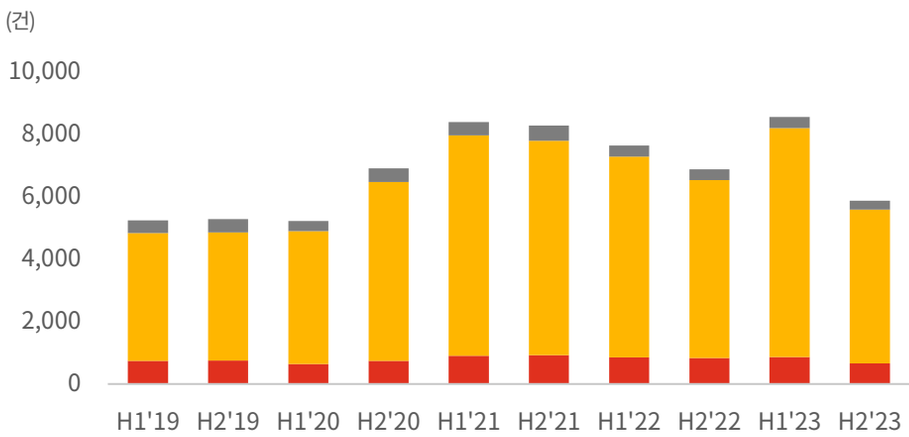
IT · 통신 & 미디어

[IT·통신&미디어] 2023년 M&A Trend: Glob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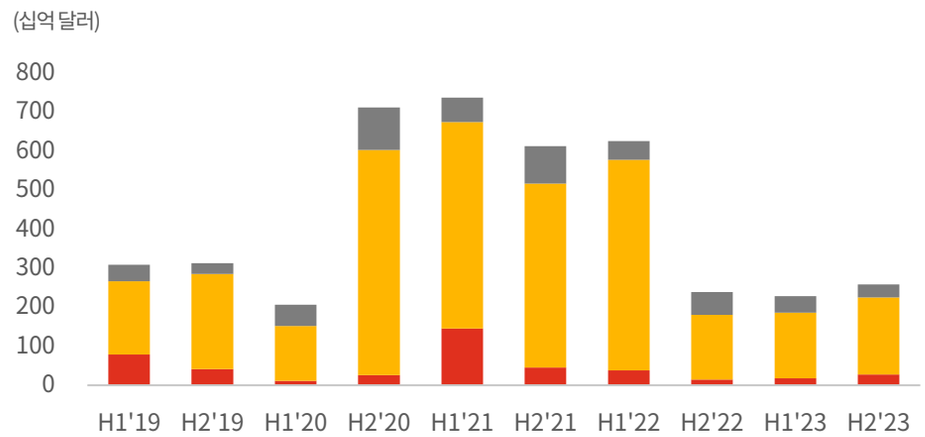
- **'23년 IT·통신&미디어 산업 M&A 거래 건수는 14,446건(YoY -1%), 거래 금액은 4,865억 달러(YoY -44%)**
  - 글로벌 시장 전체(각각 YoY -6%, -25%) 대비 거래 금액 측면에서 저조. 팬데믹 이전인 '19년 대비로는 거래 건수가 +37% 증가한 반면, 금액은 -22% 감소
  - 거래 금액의 감소는 메가딜 축소에서 기인함('21년 42건 → '22년 24건 → '23년 11건)
- '23년 상반기에는 약 8,500건의 딜이 발표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으나(거래 건수 기준), 하반기는 -31% 감소하며 약 6,000건에 미달
  - '23년 하반기로 갈수록 M&A가 부진했던 주요 이유로는 고금리, 지정학적 리스크, 규제 변화 등이 있으며, 매수자-매도자간의 Valuation gap도 영향을 미침
- **세부 섹터별로는 전년 거래 금액 대비 Tech -48%, 통신 -28%, 미디어&엔터테인먼트 -14% 순으로 감소치가 높음**
  - Tech는 전년 대비 거래 금액이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으나, IT·통신&미디어 시장 내 가장 큰 비중(75%, 금액 기준)을 유지. '23년에 발표된 7건의 메가딜 중 6건이 Tech(Cisco의 Splunk 인수건 포함, 약 37조 원)인 만큼, 여전히 투자자들의 관심도가 높은 분야

IT·통신&미디어 산업: M&A 거래 건수 및 금액_Global

거래 건수



거래 금액



미디어&엔터테인먼트 Tech 통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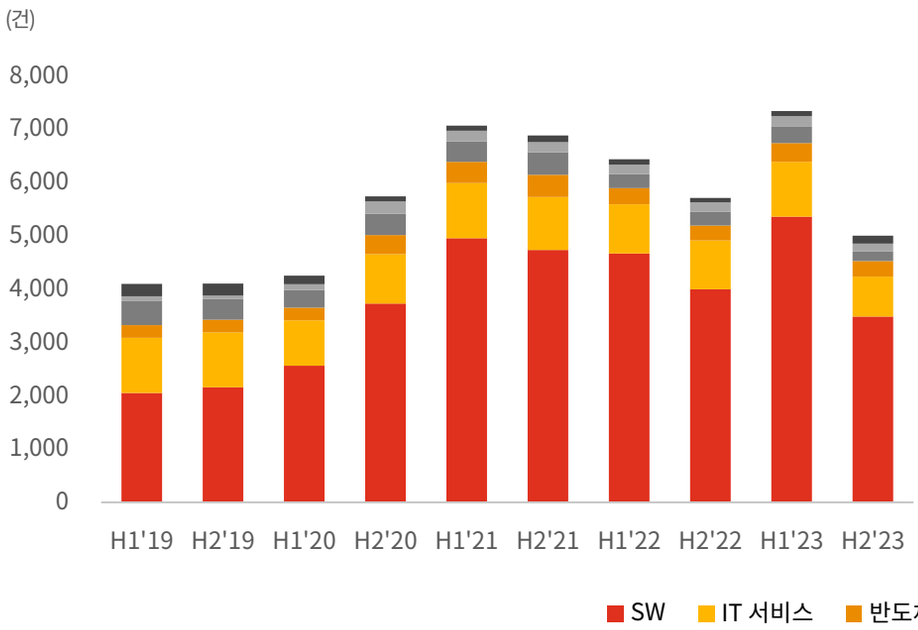
Sources: Refinitiv, Dealogic and PwC analysis

[IT·통신&미디어] 2023년 M&A Trend: Global - Tec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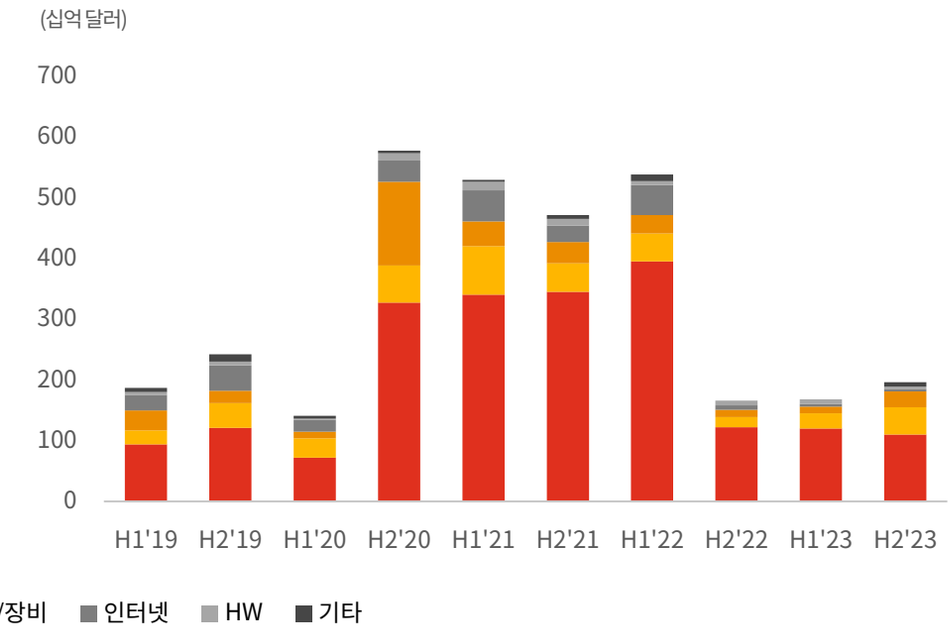
- Tech 섹터 내 M&A에서는 소프트웨어가 여전히 가장 큰 비중을 차지('23년 기준 Tech 섹터 내 거래 건수의 72%, 거래 금액의 63%)
  - SW의 거래 건수는 기준 전년 대비 +2% 증가(약 9,000건)했으나, 금액은 -55% 급감. 이는 메가딜 감소와 밸류에이션 하락 때문
- SW 다음으로는 IT 서비스가 큰 비중을 차지('23년 기준 Tech 섹터 내 거래 건수의 14%, 거래 금액의 19%)했으며, 반도체/장비가 뒤를 이음(건수 및 금액 각각 5%, 10% 비중 차지)

IT·통신&미디어 산업: Tech 섹터 내 M&A 거래 건수 및 금액_Global

거래 건수



거래 금액



SW IT 서비스 반도체/장비 인터넷 HW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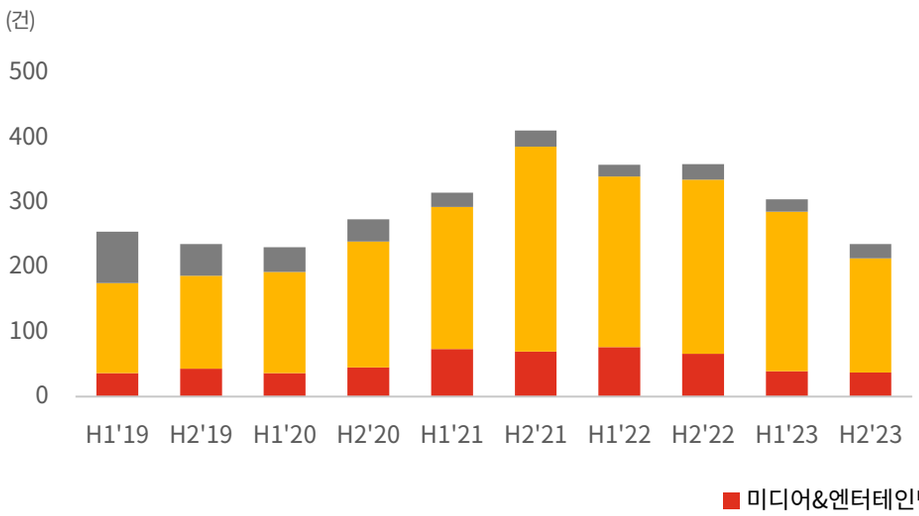
Sources: Refinitiv, Dealogic and PwC analysis

[IT·통신&미디어] 2023년 M&A Trend: 국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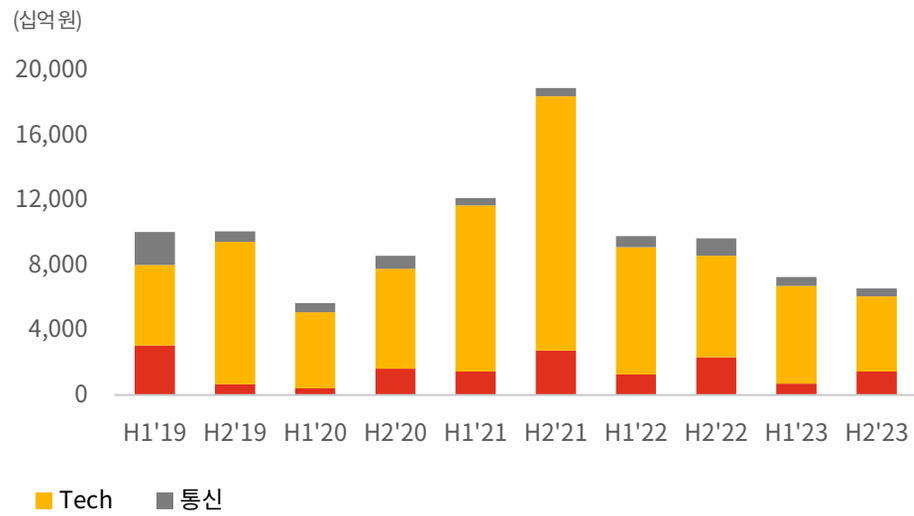
- **'23년 국내 IT·통신&미디어 산업 M&A 거래 건수는 539건(YoY -25%), 거래 금액은 13조 8천억 원(YoY -30%)**
  - 한국 시장 전체(각각 YoY -12%, -17%) 대비 부진했으며, 팬데믹 이전인 '19년 대비 거래 건수는 +10% 증가한 반면 금액은 -39% 감소
  - 고금리 기조 지속 및 경기둔화에 대한 우려로 대규모 딜이 크게 위축. 기업의 선제적인 디지털 역량 확보 필요성은 여전하나, 매도자-매수자간의 Valuation gap으로 인해 딜 성사가 어려운 분위기가 이어짐
- **세부 섹터별로는 전년 거래 금액 대비 통신 -41%, 미디어&엔터테인먼트 -40.5%, Tech -26% 순으로 높은 감소치를 보임**
  -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Tech 섹터의 '23년 거래 건수와 금액은 각각 422건, 10조 6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21%, -26% 감소. 팬데믹 이전인 '19년 대비로는 거래 건수가 +50% 증가했으나, 금액은 -22% 감소
  - 그 외 미디어&엔터테인먼트(건수 및 금액 각각 YoY -47%, -41%)와 통신(각각 YoY -2%, -41%) 모두 감소한 수치를 기록

IT·통신&미디어 산업: M&A 거래 건수 및 금액_국내

거래 건수



거래 금액



미디어&엔터테인먼트 Tech 통신

Sources: Refinitiv, Dealogic and PwC analysis

[IT·통신&미디어] 2024년 M&A Outlook: Global

- **생성형 AI 및 신기술의 발전, 사모펀드의 풍부한 자금 여력 등으로 인해 '24년 M&A 시장 회복 전망. 다만, 경제환경 불확실성 지속에 따라 수익성 중심의 투자 지속**

M&A 주요 테마

1. **수익성 중심 투자:** 딜 평가시 매출 성장률보다 수익성을 더 우선시하는 추세가 '24년에도 지속될 것. 이에 따라 지속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갖춘 기업(예. SaaS 기업)들의 투자 매력도 상승
2. **규제 대응:** 미국/EU 등의 규제 당국은 빅테크의 영향력과 반경쟁적 행위를 줄이기 위해 규제 시행. 이로 인해 M&A 선호도가 약화되고 딜 성사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리스크 상존 → 규제 강화 및 변동성을 고려한 M&A 전략 수립 요구됨

2024년 M&A Hotspots

1 소프트웨어

- SW의 구독 기반 비즈니스 모델 특성(꾸준하고 예측가능한 현금 흐름)으로 인해, 저성장 환경 下 투자자들의 선호도 상승
- 특히 PE는 '23년 SW 거래의 2/3를 차지하며 시장 주도. '24년에도 PE 중심의 시장 전망

2 IT 서비스

- 불확실한 경제 환경 속 기업이 새로운 IT 프로그램 도입을 미루고 있어, '24년 IT 서비스 시장은 어려움 지속 전망. 이로 인해 M&A도 주춤할 것
- 다만, 사이버 보안, 데브옵스(DevOps: 소프트웨어 개발과 운영을 통합하는 방식) 부문은 높은 성장 전망

3 반도체

- 규제와 지정학적 리스크가 반도체 M&A에 영향을 미칠 것
-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을 위해 M&A보다 전략적 제휴가 우선시 될 것으로 전망
  - 특히 AI 어플리케이션 관련 칩 공급 부족이 이슈 될 것
- 대형 반도체 기업들이 포트폴리오를 재평가하고 일부 사업을 매각할 것으로 예상

4 통신

- 시장 내 통합: 저조한 수익률과 규제 완화로 모바일-모바일 간 통합 활성화
- Netco 모델 재등장: 기업이 네트워크 인프라를 소유하고, 이를 통신사 및 서비스 제공업체에 임대하는 넷코 모델 부상
- 포트폴리오 최적화: 비핵심 자산 매각을 통해 비즈니스 포트폴리오를 간소화하고, 현금을 확보하거나 차입금을 감축하기 위한 노력 지속
- 디지털 인프라 통합: 통신탑(Towerco) 및 광케이블(fibre) 업체들은 투자 등급을 높이고 시장에서 확고한 입지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모가 작은 자산을 매각하거나 합병을 통해 몸집을 키울 것

Sources: PwC analysis

[IT·통신&미디어] 2024년 M&A Outlook: 국내

- 경기 불확실성에도 불구 **공급망 안정화와 미래기술에 대한 투자 지속**
  -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M&A 및 전략적 제휴, 니어쇼어링/리쇼어링 진행
  - AI, 클라우드, 빅데이터, 메타버스 관련 기술 및 인프라에 대한 투자

2024년 전망 및 M&A 전략: IT·통신&미디어

구분	업종 전망	M&A 전략
Tech	**반도체** • 글로벌 제조업 경기가 '23.3Q를 바닥으로 반등하며, 반도체 업황도 회복 진행 → 업황회복에 따라 투자 심리 회복 • 현 구간은 Up-cycle 초입. 고부가제품 및 신제품 수요가 '24년을 이끌 것 – AI가 금번 사이클의 신규 수요 견인 요소. AI 확산에 따른 서버증설 및 온디바이스 AI로 인해 반도체 수요 증가 예상 **전기전자** • '22년 이후 수요 둔화 장기화로 스마트폰/전기전자 업체들의 실적부진 지속 • '24년은 비전프로, 온디바이스 AI 탑재 스마트폰 출시 등에 따라 수요 회복 전망. 또한 카메라 모듈/부품 업체의 전방수요 확대(스마트폰 카메라 → 전장/자율주행 카메라), 가전/IT모듈 업체의 헬스케어 시장 진출 등도 새로운 성장 동력	**공급망 안정화** • 자국우선주의(특히 미국의 IRA) 대응하여,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을 위해 M&A 및 전략적 제휴, 니어쇼어링/리쇼어링 증가 **AI관련 기술 확보** • 온디바이스 AI , 메타버스 기술 및 하드웨어에 관심 **기존 사업 기반 유사영역으로의 확대** • 모빌리티, 헬스케어 디바이스 제조 역량 확보
통신	• 통신 3사 합산 영업이익은 5년 연속 성장세로 풍부한 현금 보유 • 탄탄한 자금 여력 바탕으로 신사업에 대한 투자 지속 – 데이터센터: 향후 통신사의 가장 유의미한 신사업 매출원이 될 것으로 기대 – 클라우드: 외산이 70% 이상을 차지하는 클라우드 시장에서, 국내업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 진행(KT, NHN, 네이버 3강 구도) – IoT: 차량용 무선통신, 스마트 빌딩/관제, 스마트 팩토리 등 B2B용 서비스 – AI/로봇: 음성인식 서비스 등 B2C 서비스 개발에 집중	**미래 기술 투자** • 데이터센터, AI/로봇, 클라우드 등에 대한 투자 지속 **업종과의 전략적 제휴** • 디지털화·커넥티드 역량 확보를 위해 소프트웨어, 모빌리티, 기계 업종 등과의 제휴 증가

[IT·통신&미디어] 2024년 M&A Outlook: 국내_계속

구분	업종 전망	M&A 전략
플랫폼/ 미디어/ 엔터	**인터넷/플랫폼** • 채널 다변화로 인해, 인터넷 기업의 이익 근원인 광고/커머스/웹툰 부문 저성장 지속 → 기존 포트폴리오 조정 및 신성장동력 모색 • 생성형 AI는 인터넷 기업들에게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영역. '24년부터 B2B를 시작으로 생성형 AI의 다양한 수익화 모델 시도될 것 **미디어/엔터** • K컨텐츠에 대한 중장기적 성장은 유효하나, '24년은 BTS 부재 등 주요 엔터사들의 실적 불확실성 염려 • 미디어는 국내 경기 둔화 및 해외 OTT들도 긴축경영에 들어가면서, '재고 드라마'가 누적되어 있는 상황. 미디어 업황 회복에는 광고 반등이 선행돼야하는데, 경기가 미진한 상황 속에서 업황 난항 지속	**포트폴리오 조정** • 비핵심 사업 매각 및 비용 축소 진행 **AI 투자** • (모델 개발) 일부 빅테크의 파운데이션 개발 투자 • (어플리케이션 개발) AI 활용 여행/교육/쇼핑 등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 발전 → 스타트업 지분 투자 및 M&A 증가 • (게임 개발) AI 도입으로 개발 기간 및 비용 단축 • (B2B 서비스) 온라인쇼핑, 광고 등에 AI 도입하여 소비자 맞춤형서비스 제공 **컨텐츠 확보를 위한 M&A 지속** • K-콘텐츠 확보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 지속 • 경기둔화로 실적이 저하된 엔터 기업들이 매물화되면서, 업종 내 M&A가 활발히 진행될 것 • 플랫폼 기업들이 양질의 콘텐츠 확보를 위해 엔터 분야에 대한 관심

Business Contacts

Business

Deals Leader

박대준 Partner
dae-joon.park@pwc.com

Deals Deputy Leader

민준선 Partner
joon-seon.min@pwc.com

류길주 Partner
gil-ju.ryu@pwc.com

헬스케어

윤창범 Partner
chang-beom.yoon@pwc.com

정진송 Partner
jinsong.chung@pwc.com

IT·통신&미디어

최창대 Partner
chang-dae.choi@pwc.com

이도신 Partner
do-shin.lee@pwc.com

홍성표 Partner
sungpyo.hong@pwc.com

산업재 및 자동차

김재운 Partner
jae-un.kim@pwc.com

홍석형 Partner
seok-hyoung.hong@pwc.com

곽윤구 Partner
yun-goo.kwak@pwc.com

에너지·유틸리티·소재

서용태 Partner
yong-tae.seo@pwc.com

한정탁 Partner
jungtak.han@pwc.com

홍진오 Partner
jino.hong@pwc.com

박치홍 Partner
chihong.park@pwc.com

조한준 Partner
han-jun.cho@pwc.com

Deals Platform

탁정수 Partner/Tax
jeongsoo.tak@pwc.com

정경수 Partner/M&A센터
kyungsoo.jung@pwc.com

성낙필 Partner/Private Equity
nack-pil.sung@pwc.com

김용현 Partner/Value Creation
yonghyun.k.kim@pwc.com

소비재

장병국 Partner
byeong-guk.chang@pwc.com

최창윤 Partner
chang-yoon.choi@pwc.com

금융

한정섭 Partner
jeong-seob.han@pwc.com

김기은 Partner
gee-eun.kim@pwc.com

Business Turnaroud

이규대 Partner
kyoo-dae.lee@pwc.com

김홍동 Partner
hong-dong.kim@pwc.com

Author Contacts

Author

삼일PwC경영연구원

이은영 상무
eunyoung.lee@pwc.com

오선주 연구위원
sunjoo.oh@pwc.com

최형원 책임연구원
hyungwon.choi@pwc.com

www.samil.com

삼일회계법인의 간행물은 일반적인 정보제공 및 지식전달을 위하여 제작된 것으로, 구체적인 회계이슈나 세무이슈 등에 대한 삼일회계법인의 의견이 아님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간행물의 정보를 이용하여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삼일회계법인은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아니하며, 본 간행물의 정보와 관련하여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삼일회계법인 전문가의 자문 또는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S/N: 2402W-RP-013

© 2024 Samil PricewaterhouseCoopers. All rights reserved. “PricewaterhouseCoopers” refers to Samil PricewaterhouseCoopers or, as the context requires, the PricewaterhouseCoopers global network or other member firms of the network, each of which is a separate and independent legal entity.